朝鮮日報
夕刊 三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冲部隊奇襲戰으로 芝罘完全占領
要所占據코市內肅淸

【芝罘三日發同盟至急報】三日午前零時半福山을進發한 冲快速部隊는 芝罘로向하야 一路猛進하야 酒井先遣隊는 同一時五十分 아무抵抗도밧지안코 芝罘를完全히占領하고繼續하야 冲快速部隊는 同四時步武堂堂히 入城하야 芝罘全市에 日章旗를飜揚하엿다

【芝罘三日發同盟】三日午前四時 疾風迅雷의奇襲戰에依하야 芝罘를占領한 冲部隊는 即時二班에分하야 警察廳公安局을 包圍하고 寢床을襲擊하야 李局長以下 巡警巡捕等約八百名의 武裝解除를行하는一方 市內의 要所에兵員을 配置하고 掃蕩과 治安維持에 當하는外 一部兵力으로써 煙臺特別行政公署 電信電話局 徵稅局 海關及 中央 中華交通 三銀行以下 各機關을 占據하고 日章旗를揭揚하엿다
또 武裝解除할때 第三分局에서는 手榴彈을 投하야 抵抗하엿스나 當場에서 銃殺當하고 我方에는損害는업다

山東 半島肅淸完成
各要地의敵軍掃蕩

【芝罘三日發同盟】山東半島에잇는 敵掃蕩의 重要任務를 帶하고 一日未明靑島를 出發한冲快速部隊는 二百五十粁를 僅僅二日餘로 突破하야 南으로부터北에 半島를 橫斷하야 渤海에臨한 最大都市芝罘에 光輝잇는日章旗를 飜揚하엿다 一日行動을開始한 以來各地에 蟠居한 敵을 或은 降服시키고 或은 驅逐하야 即墨、鰲山衛、萊陽、棲霞、福山等半島의 要衝을 모조리 日章旗下에 너허 거의敵兵의 그림자를 볼수업시 山東半島의 肅淸工作은 이에完成되엿다

【福田二日發同盟】一昨日山東半島中部의 要害萊陽을 占據한冲快速部隊는 二日午後五時마침내芝罘西南方福山縣城에 突入하야城頭노피日章旗를 飜揚하엿다 여기서 芝罘까지는 겨우二里밧게안된다 그리고 冲部隊는 即時城內의 殘敵掃蕩을 行하야 公安隊員의 武裝을 解除하고 敵의遺棄한 武器彈藥多數를 鹵獲하엿다

敗戰敵旅長 拳銃自殺

【鳳陽에서二日同盟特派員發】洛田部隊의 臨淮關占據에對하야敵의 一旅長의遺體가發見되엿다 이旅長의 姓名은不明이나 蔣介石으로부터 敗戰의責任을問責될것을念慮하고 이以上 日本軍의精銳에抵抗할수업는것을알고 我軍의臨淮關突入과同時에 괴스톨로 自殺하엿다

蚌埠縣城의敵軍 懷遠方面으로敗走

【南京二日發同盟】臨淮關、鳳陽을連하는 賣軍한一戰에敗한敵은 蚌埠에서 我軍의北上을 阻止하고 決戰을試하러하엿스나 我軍의三方으로부터는 包圍攻擊을맛고 맥업시 潰滅되며 蚌埠縣城으로부터敗走하는敵은淮河에沿하야 크敗百餘으로 北方懷遠으로 向하야 敗走中이다

定遠完全占領

【鳳陽에서二日發原 中井同盟特派員發】二十八日全椒를 進發한兩角小野兩兩部隊는 執拗한 敵襲擊하면서 前進二日午後零時半鳳陽西南의 要地定遠을完全히 占領하고 敗敵을쫓처서 猛進을繼續하고잇다

本會議休會코 豫總에最終質問

【東京電話同盟】三日의議會는本會議에 上程할 政府提出案이皆無하기때문에 兩院이 모두 本會議는 休會하고 貴族院은 委員會를開하지안코 悠悠함을 보이엿다 衆議院에서는 午前十時二十二分부터 豫算總會를 開하고 道家齊一郎氏(第一) 北昤吉氏(民政) 出谷義治氏(東方) 小晃山七十五郎氏(政友) 石井德久次氏(政友)가 最終總會日임으로 質問戰에 健鬪하고 四日부터 分科會에옴겨 細目檢討에 드러가게되엿다 一方 電力管理法案委員會는 午前十時頃부터열리며 前日에繼續하야 技術論法理論戰을展開하엿스나 一般으로低調이어서 表面開店休業의感을주게하엿는데 國家總動員法案提出問題를 圍繞하고 政府對政黨의對立 事變外交懇談會設置問題其他底流的動向은 相當히 頻繁하야 이들諸問題의動向에는 重大關心을주게하엿다

上海關稅問題 外相方針闡明

【東京電話同盟】廣田外相은 二日衆議院赤字公債法委員會에서田村秀吉氏(民政)의 質問에 答하야上海稅關問題에 對하야 左와가티方針을 明示하엿다
一、上海稅關問題는 目下 交涉停頓狀態에잇다
一、그러나 我國으로서는 그全部를接收한다는것보다關稅收入을流用한다는 前提로 進行하고그收入도 正金銀行에 預金하기로하엿다
一、關稅收入을 上海復興事業財源으로 하겟느냐하는 質問이 잇스나 只今은 軍事行動中이오그關稅收入도 減少하엿스므로 復興事業財源이 도리라고는생각되지아니한다

議會에亂鬪劇

【東京電話同盟】最近주먹바람이 거이업서지議會에서 또다시 暴力行動이이러낫다
二日午後一時半 豫算總會再開前室內에아직 委員들이하나둘들리여올때 和服입은中井一夫氏(兵庫縣選出)가委員長室에 田子一民氏(岩手縣選出)를만나 무엇인지 두서너마디한듯하더니 突然激論이버러지 얼골을붉킨 中井氏는 이녀석이라고 大聲을질리며 田子委員長의 右頰을따리며 『녀가는녀석은 官僚獨善파마찬가지다委員長을내노아라』고叱責하며 다토고잇슬즈음 守衛가中間에드러가 豫算總會의 前座의一幕을다치엇다 아마 朝日中井氏가 人民戰線檢擧事件으로發言을求한것을 田子委員長이 許可치안코 그대로默殺하여버린模樣이다

軍事費追加豫算額 四十五億圓에到達?
大藏省主計局査定中

【東京電話同盟】臨時軍事費特別會計追加豫算은 目下大藏省主計局에서 査定中인데 十日지나서 提出될豫定이다 大藏省에서는 蔣政權의 根絕을期하기爲하야 長期戰을 前提로하고 臨時議會를 열必要가업도록 大體一年間의 經費를 計上하고저豫算을 編成할方針인데 金額은陸軍에서 約三十五億圓 海軍에서 約十億圓總額四十五億圓豫想에達할것이라고 觀測되는데 여와同時에支那事變特別稅法案 戰時增稅案을 提出할러이다

補充顧問官內奏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平沼樞府議長은二日樞府本會議散會後 天皇陛下께 拜謁、豫者內定된 松井慶四郎男、松浦鎭次郎氏 原通敬氏等 補充顧問官을 內奏하엿다 그리고 親任式은 아마 三日中에 擧行하게될것이다

時事解說

新嘉坡軍港

新嘉坡 攻防大演習은 今月二日부터 五日까지 四日間에亘하야 擧行되거니와 [illegible] 은 지난三十一日에 新嘉坡軍港에서 [illegible] 防備하고잇는 攻略軍艦隊 노로 [illegible] 따라 支那海方面에 出動하엿다고한다。
世界 最大의 大洋인 太平洋에는 入口가 둘이 잇다。하나는 東方에잇는 巴奈馬運河요 하나는 西方에잇는 新嘉坡다。[illegible]

[illegible]

新嘉坡海軍根據地는 英國海峽植民地의一部 新嘉坡島의南[illegible]

◇

[illegible] 一九二一年에 이 [illegible] 二千五百마일이나되는 [illegible] (K)

佛海軍擴充計畫

【巴里二日發同盟】佛國政府는列國의 海軍擴充計畫에 對抗하야 佛國海軍의 大擴張을 斷行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하더니 二日佛國海軍省當局은 AP通信記者에 말하는바에依하면 베르드랑海相은三日의 閣議에 다음提案을 提示하기로되엿다한다
今後三年間에 三萬五千噸級主力艦六隻의 建造에 着手하야 이를爲하야 總額十億法의 豫算을 即時 計上하기로하엿다

英商船事件으로 伊佛大使英外相과協議

【倫敦二日發同盟】駐英伊太利大使그란디氏는 二日午後四時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다음二十分後 느게佛國大使 코르반氏도 外務省에드러가 이든外相과의間에 英商船엔데미온號擊沈事件에 伴한地中海情勢의 對策에 對하야重要協議를遂하엿다 또米國大使館參事官조쓴氏도 同時刻에英國外務省을訪問하엿다

英外相議會서 强硬方針宣明

【倫敦二日發同盟】이든外相은二日下院에서 엔데미온號事件에關하야 英國의强硬決意를 表明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余는本日佛伊兩國大使와 會見하고 엔데미온號擊沈事件과如한不祥事件의再發을 防止하기爲하야取할 措置에對하야對策을協議할터인데 英政府의提案內容에 對하여는 아직무엇이라고公表할수업다 但英商船의保護를爲하야政府는 이미 地中海警備艦隊를 强化하엿다。
現地報告가到着되는대로 政府는 英商船에對하야 如斯한不法攻擊을 拒絕한 政府當局에 對하야 即時適當한 措置를取할方針이다

英態度極强硬 報復對策을協議?

【倫敦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二日午前定例閣議를 開催하고 英商船엔데미온號擊沈事件에 關한重大對策을 協議하엿는데 政府當局의態度가 자못强硬하야 現在同商船을 攻擊한潛水艦의 國籍은不明하나 國籍이 判明될境遇에는 責任國에對하야 抗議를提出하야
一、賠償金
一、此種不祥事의再發을 防止키爲하야 適當한措置를 講究케할것의保障을 要求할意向이라한다
潛水艦國籍은 判明되지안흣나 右에關聯하야 프랑코及바르셀로나兩政權에 關하야 嚴重警告를 發하리라고 觀測된다 閣議는二日午後四時부터 行할이든外相 콜방(佛) 그란디(伊) 兩大使會談에 對處할 英政府의 方針을 討議하엿는데 會談은 地中海 警備艦隊 增派及 攻擊戰隊報復對策이 討議될러이다 그리고情勢如何에依해서는 니용協定에 依한航路에 就航하도록 訓令을 發하게될模樣이다

英艦豫定變更 에號調査에向發

【지부랄타르二日發同盟】英國第二巡洋艦隊司令官로마스·칼바르提督이 坐乘한 旗艦사잠프톤號及 [illegible] 一日지부랄타르港을 出帆하야 [illegible] 豫定이엿스나 엔데미온號를 [illegible] 二日豫定을 變更하야 [illegible] 方面에 向하엿다 [illegible] 本國政府의 [illegible] 事件의 現場調査를 行하리라고觀測된다

給女의 一流된一新 이容陣
"써―비스"型女淑한肅靜
スリースター
明治町一丁目電本〇八六五
스비―써 이한行斷을革改
서로下貴히足은格價이와
다이리하케對相目括 (廣告)

超弩級主力艦說로 英米佛主要協議
極東海軍問題에도言及

【倫敦二日發同盟】駐英米國代理大使조손氏는 海軍武官을帶同하고 二日午後英國外務省을訪問하고 佛國海軍專門家를 交하야 英國外務、海軍兩當局과 軍縮問題에關하야 重要協議를遂하엿다 會談內容은 極祕에 附하여 잇스나 日本이超弩級主力艦을建造한다는報道에 對하야 다시情報를交換하고 新倫敦條約의免除條項에基하야 英、米、佛三國政府가制限外 大主力艦建造에 進出할可能性을協議한것으로 解釋된다 英海軍省一高官도『會談은極東의 海軍問題에도抵觸하엿다』고言明하엿다

原嘉道氏를 樞府副議長에內奏

【東京電話同盟】樞密院副議長의後任으로 豫者原嘉道氏로內定되엿든바近衛首相은 二日樞密院本會議散會後平沼樞府議長과 協議한結果正式으로決定하고同日補充顧問官三氏의內奏와함께 內奏하엿다

中國領事會議內容

新政權參加以來 一個月餘 新事態에 對應할中華民國 臨時政府의方針에따라 在朝鮮四萬中國人指導의 第二段階에드러간 京城總領事館에서는 三日范總領事를 中心으로各領事館代表 新義州領事馬永發 元山副領事張義信 仁川辦事處主事王輯功、釜山辦事處主任王永晋 等 領事館諸氏參集 注目할五色旗下에 朝鮮神宮에參拜 뒤이여領事館內에서 神酒에東洋平和와 新政府의前途를祝하고 午前十一時부터 領事會議를開催 范總領事가 먼저新政權支持에 이르게된 決意를披瀝하고 排共親日滿의 新政權의 根本方針을 說明한後 領事館으로서의 今後의方針 其他에對하야 具體的協議를 行하고 여다

(寫眞은 同領事會議에서 新政府의 發展을爲하야 祝盃를 올리는光景)

領事會議에呼應 中華總商會結成

范總領事의 領事會議招集에呼應하야 京城에參集한 京城을爲始하야 釜山、仁川、元山、新義州、鎭南浦、平壤、大邱、咸興、淸津及海州等의 各中華商會代表는朝鮮神宮에參拜한後 午前十一時부터 京城中華商會에 總商會結成會議를開하고 新政府의 方針에따러 日滿支親善의 經濟的機關으로서 總商會結成을 決議하고 初代會長에 現京城中華商會長周愼九氏를 推하고商工業 會議所貿易協會等과 協調하야 新政府의大方針과 相俟하야 經濟的親善關係實現의 具體策에對하야協議를遂하엿다

恩赦奏請範圍
特赦、減刑、復權으로內定

【東京電話同盟】二月十一日 憲法發布五十週年記念日에際하야恩赦奏請의 議에 對하야 樞密院本會議散會後 宮中에서 湯淺內府近衛首相이 會見한 結果 帝國의 歷史的偉業인 支那事變의進捗下에 잇서서의 政治的 技術的恩赦奏請의 範圍를 一特赦令、一、減刑令一、復權令의 三種으로 하기로 內定되여 近衛首相은 三日關係閣僚인 末次內相、杉山陸相 同日午後院內大臣室에서 會見하고 特赦의範圍手續等에 對하야 詳細히協議하엿다 따러서 政府는 五日乃至七日頃臨時閣議를 開하고 原案을假決定하고 首相은參內御內意를 拜한後 다시 上奏御裁可의 手續을 取하게되엿다
그리고 特赦의種類와 範圍等에對하야 다시 法相手許에서 關係方面과 愼重[illegible] 審議할터인데 大體로그範圍는 政治犯의 程度에 그치고 治安維持法違反 選擧違反 其他重大事犯은 除外될模樣이다

追加豫算內容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近近에 昭和十二年度追加豫算第三號를 提出할 方針인데 그金額은 約二千萬圓豫測으로 災害救濟費 補充費等에 關한 經費가 主되는 內容을 占하엿다 또 그財源은 第一號의 境遇와 同樣으로 今年度의 歲出不要額을 豫算에너헛다 또十三年度追加豫算提出時期는 未定이나 그金額은 相當히 多額에 達할 豫測이다

英巡洋艦極東向發

【倫敦一日發同盟】英國海軍의新銳巡洋艦버밍감號(九、〇〇〇噸)는二回에亘한 失火事件때문에 極東으로向하야 出發하기를 延期하엿섯는데 結局一日에 포츠머스軍港을 拔錨하야任地로向하엿다

聯盟非公開理事會 對日決議案을採擇
波蘭페루兩代表棄權

【쥬네브二日發同盟至急報】聯盟理事會는 二日正午 非公開로開會 對日決議案을 討議하엿는데 午後二時七分 公開會議에드러가 波蘭及 페루兩國代表의棄權을除하고 全會一致로 同案을可決하엿다
對日決議案全文은 如左하다
理事會는 極東事態를 考察한結果 前會의理事會以來支那에잇서 戰鬪行爲가 依然繼續激化되고잇는 事實을 遺憾으로여인다 支那政府가 國家의政治的 또經濟的再建을 爲하야行하여온 努力과 그成果에鑑하야 如斯한事態의惡化를 特히遺憾으로 여인다 聯盟總會가 一九三七年十月六日의 決議에서 支那에 對한 道義的援助를 保證하고 聯盟國에 對하야 支那의 抗戰力을 弱하게하고 現下의紛爭에對하야 支那의 困難을助長할 結果가되는 如何한行動이라도中止하고 또 聯盟國의 各自가 어느程度까지 支那를援助할수잇슬가를 勸告한理事會는 聯盟國에 對하야 右總會의 決議에對하야 [illegible] 注意를喚起하는者이다 또 理事會는極東事態에關하야 各種 利害關係를가진 聯盟國이 紛爭의公正한 解決에 貢獻할其他手段의 採用의 可能性에對하야 極東에 利害關係를가진諸國政府와 協議檢討를 遂할機會를 逸치안도록期待한다

顧維鈞의演說

【쥬네브二日發同盟】對日決議案을議할 第百回聯盟理事會는 二日午後一時부터開會되엿는데 日本側으로부터는宇佐美總領事가 傍聽하야 劈頭아데리議長은 日支紛爭問題를 上程할것을 宣言하고 對日決議案을 [illegible] 하엿다 顧維鈞支那大使는 [illegible] 을要求하야 聯盟提訴의理由로서 日本의對支行動을中傷하는 長廣舌을演하엿다 顧維鈞代表는 먼저第十八回總會以後의 日支紛爭의經過를 길게述하고 日本의侵略非戰鬪員殺戮을 訴하엿는데 그例證으로 파네이號事件레이디·버드號事件、海關接收 上海租界行政干涉等으로부터 故田中大將의 覺書等에까지 言及한後 브랏셀會議와 聯盟의失敗를指摘하고 거듭九個國條約에依한 集團的處置를 要求하고 特히如左히述하엿다
聯盟은 侵略國의意圖를 挫折시키는同時에 犧牲國을救援하기爲하야 斷乎한强硬措置를 取할것이다 聯盟의 如斯한强硬態度이야말로 聯盟에對한 信賴의 念을 回復하고 聯盟의 面目과權威를 保障할수잇슬것이다 西歐洲의平和와 秩序와는極東의 事態進展에 따라非常한 脅威를 밧게될것이다 日支紛爭과 西班牙內亂間에는 明瞭한關聯이잇다 聯盟이平和를 愛好하는 非聯盟國과 協力하야國際條約特히 九個國條約에 準據하야日支紛爭에 急速하고또適切한解決을 與할수잇서야 비로소歐洲의 安全에實質的貢獻을與할수잇슬것이오 全世界를通하야 法과秩序와의 勝利를 [illegible]할수잇슬것이다

決議案採擇으로 聯盟體面을糊塗

【쥬네브三日發同盟】聯盟理事會는 二日午後對日決議案을 마친내 採擇하엿는데 內容은 昨年十月六日의總會決議를 再確認하는程度로 顧維鈞、리트비노프의 蘇支合作에依한 强硬陣은 極東의現實事態아페는 何等奏效함이업고 聯盟도또한 責任廻避에汲汲하야 겨우決議의 最後에잇서 將來極東關係國이 日支紛爭에關與할 餘地를남기고 面目을糊塗하엿슬뿐이엿다 이미重要한骨子가 崩壞된國民政府에서는 大勢이에조지안는다는 印象이强하엿다
天羽公使、宇佐美總領事等도 그經移를 警戒하엿스나 泰山鳴動에鼠一匹의 狀態로 天羽公使는 二日 午後쥬네브發 伯林으로 歸還하엿다

政府政黨首腦者 廣汎한委員會組織
重要國策에對해懇談

【東京電話同盟】政府는今議會가事變下 最初의 通常議會임으로 長期戰에對한 帝國의恒久的方針을樹立할決意下에 貴衆兩院을通하야戰時議會의 本質을 充分히發揮시키여 써 國民의 國家總動員意識昂揚에 努力하려고하고잇다그런데 兩院의 論戰을 檢討하고도 各委員會의 論議를 一[illegible]擧國一致의 氣分은顯著함과가튼 態度를 取하고잇다。 [illegible] 그議論은 자칫하면 繁雜한 枝葉末節에흐려 오히려議論을爲한議論을 하려하는 空氣가아직 根絕을 갑추지 못하고 헛되히 閣僚를 答辯에 [illegible] 答辯을 無意味하게 拒否하야 마치 政黨스스로 政務官의 存在를 否定하는 [illegible] 때문에 政府는 헛되히 繁雜한 事務에 얽매여 重大한國務에 遊滯를 招來하는結果로되므로 前부터 戰時下에即應한 議會의機能發揮에 對하야 무슨方法을 講究하려는 意向을 가지고잇는바 電力國家管理案及 國家總動員法案을圍繞하고 相當險惡한 空氣도 豫想되는 現狀에鑑하야 여름 重要法案을 提案하야 議會의 協贊을 經하지안흐면 아니될根據와 理由에對하야 政黨側에 아직 充分히 納得하지못한바잇다하야 政府로서는 面對하야 意見의交換할 必要를痛感하게되엿스므로 二日 永井遞相、中島鐵相의 政民兩黨出身閣僚를爲始하야 政務官으로하여금 政民兩黨首腦部의 懇談會라고할廣汎한 委員會를 設置하고 여기서 重要法案을 提案하야 議會의 協贊을 經하지안흐면 아니될根據 [illegible] 兩黨首腦部의 諒解를求한바 各派가모두 그趣旨를 諒承하엿다 따러 具體的內容에 對하야는 다시協議할러이나 爲先 小山重光兩正副議長을 中心으로 政府各政派首腦部의 [illegible] 會派首腦部의 [illegible] 諒解를求하야 事變下議會의 眞面目을發揮하야 議會의 能率的運用에依하야 生하는 余力으로써 事變處理國策遂行에 萬全을期하기로되엿다

骸炭不足으로 朝鮮商議蹶起

朝鮮에서 使用하는 骸炭은從來支那、滿洲와 兼二浦日鐵工場으로부터 供給을 밧고잇섯는데 最近支那、滿洲方面의輸入은 杜絕하고다시 兼二浦 日鐵工場도 供給을 中止함에 至하엿기때문에 各地鐵鑛物工場은 모다 悲鳴을내고잇는 實情에鑑하야 朝鮮商議에서는 本三日總督府當局을訪問하고 이의善處를 懇請하야骸炭供給處인 日滿商事株式會社에對하야 速히 骸炭과 骸炭原料를輸入하야 配給에 遺憾이업도록便宜를 보아달라고하엿다한다

鳩山使節 首相에報告

【東京電話同盟】二日 歸朝한 政府代表委員 鳩山一郎氏는二日午後一時半에 院內大臣室에서 近衛首相과 會見하고 國民使節로 英國、米國、獨逸、伊太利等에서 日本의國情을 諒解시키기爲하야 各方面의 人士와折衝한 顚末과 그他에對하야 詳細히報告하엿다

賠償金은必受!
金錢外의物質로라도

【東京電話同盟】二日衆議院赤字公債委員會에서 馬場元治氏(東方)의 今次의支那事變에 際하야 在支邦人의바든 損害賠償問題에 關한 質問에對하야 廣田外相은 左와가티 言明하엿다
蔣政權으로부터 賠償金을바들수가업드라도 支那로부터 賠償金을 밧는다는 根本原理는 確定하엿다 戰爭이 長久繼續하면 賠償金을 바들수는업스리라고보는 사람도잇스나 賠償金은 金錢만으로 밧는것이아니다 物件에 依하야 賠償시키는 例도잇다 이點에 對하야여러가지 前例도 만흠으로 充分히 考慮한後 決定하겟다 當場在支邦人의 回復資金을어떠케 하느냐하는 點이나이는國家의利益을 伸張하는것이므로 政府로서는 錯誤가업도록 適當한方策을 樹立하야 在支邦人의 事業回復을 援助할方針이다

八面鋒

◇ 米國上院에서는 前外交委員長보라氏가 支那問題로 英米가 너무 接近한것을 攻擊。
◇ 前國務長官스팀슨氏는 滿洲事變때 英國을 끄러너흐랴고 百方의 努力을 다하얏다。
◇ 自己가 當하면 依例히 贊일도 남이 한것이면 反對하는것이 사람 政治家。
◇ 今番 增徵되는 酒稅가 二千二百萬圓인데 燒酒、濁酒가 七割을 占햇다고。
◇ 燒酒、濁酒는 農民들의 常用 그것을 끈코는 하로도 못살 물건。
◇ 어술에 稅金을 만히 부친다면 大衆의 負擔은 增大。
◇ 元來 濁酒는 家家戶戶에서 지어 먹든것이어니와 어것이 獨立、그리고 增稅되니 大衆의 주머니는 一層 비일밧게。
◇ 京城東部住民代表가 龍山、電話區域을 撤廢해달라고 三當局에 陳情。
◇ 가튼 京城府民으로 差別待遇는 不可。急速 撤廢가 至當。

辭令

人事·集會

▲松澤龍雄氏(總督府外務部長) 滿洲移民選定狀況視察次 四日午前七時五十分京城驛發 忠南、全北、全南、慶南、慶北地方에出張、來十一日午前二時五十八分 京城驛着歸任豫定
▲八木定氏(京城電氣會社營業課長)新任人事次來社
▲增田武雄氏(同集金課長) 同上
▲長島斐一郎氏(前京電營業課長) 辭任人事次 同上

島田少佐別世

朝鮮軍司令部附 報道班員 島田瑞穗少佐는 狹心症으로 二日午前二時에 別世하엿다 享年은三十九歲이며 遺族은 夫人及二男가잇다 告別式은 四日午後二時에 府內元町西本願寺에서 執行하기로되엿다

特赦減刑復權될者 朝鮮서도九千餘名

昭和九年에는五百名이即日出監

法務當局萬端準備

이월십일일 기원절(紀元節)은 헌법발포오십주년기념일(憲法發布五十週年記念日)이므로 정부에서는 은사(恩赦)를 주청하고자 수일전부터 준비중이든바 마침내 삼일오전에 특사(特赦), 감형(減刑), 복권(復權)등의 은사를 주청하기로 결정하얏는데 그중에는 조선도 포함하얏슴으로 총독부 법무국에서는 정부의공보가 오는대로 면게자를 총동원하야 이은전입을 자격자를 심리하기에 유감이업도록 만단의준비를 내명하고 방금대기중인데 이번에 특사, 감형, 복권등세가지 은전을입을사람은 현재전조선각형무소내재소자, 금고(禁錮)와 체형을받는 재각자는 일만칠천여명중약구천명에 달하리라고 예상되는데 소화구년은사령당시에는 약일만명이 은전을입엇스나 이번에는 은사령의 범위가 여러가지사정으로하야 그때와가튼 것은도저히 바라기어려우나 그대신에 종래조선에 업든특사가 조선에도 실시될모양이므로 량에잇서서는 소화구년의 은사령만못하드래도 질에잇서서는 그때보다 나흘듯하다 소화구년의 전례에의하면 감형의시 바로 방면된이가 형기이분의일이 상부여잣든 나머지형기이분의일을 감형하고 기타는 나머지형기사분의일을 감형하야 당일출옥자가 약오백명에 달하얏섯다

公報오기前은 云云을不許

御園生行刑課長談

法務局御園生行刑課長談 이에대하야 총독부 법무국어원생행형과장(御園生行刑課長)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이문제는 주청수속만게가 잇슴으로 공보가 오기전에는발표할수가업다 만일합부를말하얏다가 사실이틀리는 때에는 중대한 거지말이되는고로 나뿐아니라 관계당국자는 누구나말할수업는것이다 결정실시되는때에는 결코 만시지탄이 업도록 일반이알게될터이다

在住朝鮮人爲하야 夜間學校開設

【大阪】복강현(福岡縣)사회사업협회에서는 미호금년의 조선청년들에게 국민교양을 함양시킬목적으로 야간학교(夜間學校)를 개설하게되엿다는데 개설장소는 조선사람들이 비교적 만히잇는 문사(門司) 약송(若松) 대모전(大牟田) 등지외 팔번시(八幡市)에 설치하고 수업기간은 일개월로 일교에 사십명가량을 수용하리라는바 강사는 유력한 조선인의 소학교장등이 담당하게되리라 고 한다

來十一日부터 新設될郵便所

체신국에서는 각지방의 발전에 따라종래다음의 각지에 잇든우편취급소(郵便取扱所)를 폐지하고 우편소를신설하야 오는 십일일부터 다음의일흔곳에 두전신전화의 사무를 실시하기로되엿다 그래서 각지방의 발전에 만흔 편의이잇게 될터이라한다

◀咸興郵便所=咸北鏡城郡漁郎面漁郎洞 無集配로 電信及電話 事務取扱함

◀岡大郵便所=咸北慶興郡上下面太陽洞 無集配로 電信及電話事務 取扱함

◀承良郵便所=咸北慶源郡安農面承良洞

◀城田郵便所=全南長興郡城田面城田里

◀花田郵便所=慶北慶城郡臨陽面花田洞

◀加祚郵便所=慶南居昌郡加祚面馬坪里

◀佐川郵便所=慶南東萊郡長安面佐川里(請願新設)

朝鮮人教育施設에 移管條件不履行

巨額의補助金支出도不拘

重視되는滿洲國教育政策

작년십이월일일부터 만주국(滿洲國)의치외법권(治外法權)철폐와동시에 재만조선인교육기관도 만주국정부에이관하얏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최초이교육기관을 이관할때에 만주국정부와 조선총독부 량자간에 상당한조건을 부처서 협정조인하얏슴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약속대로리행하는것이하나도 업슬뿐아니라 이관하기전에잇든 시설인 학교수학의(補習)가튼것은 도리어 업서진채 그대로잇슴으로 조선당국을 비롯하야 재만조선인각방면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중이다 이관당시 협정한 내용의대개인즉 종래매년약사십만원, 작년에는 사십사만팔천원을 보조하야오든것을 이관후인 금년에는 칠십사만일천원으로 작년보다약 삼십만원의 예산을 보조하야 이와가티 거액을 증가하기로된 것은 이관협정당시에 아동한명에 칠원비례의예산을 총독부에서 보조하면 보건위생기타시설에 별부감업시 될수잇다는 의론이량방에 일치하야 금년도는 아동이증가되는대로 아동한명에칠원식을 증액보조하기로된것인데 이와가티 아직 하등시설에착수하지아니하얏슬뿐 아니라 이만전보다 오히려 부족한점이 잇는것은 적지안흔 유감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총독부당국에서는 이만후 시일도 짧을뿐아니라 신년도가 아므로 나머잇는 준비와 예산관계로 아직 볼명된 경으로 볼수잇는것이라고말한다

公益質屋經費

소화십이년도공익질옥(公益質屋)경상비와 차입자금리자에대한 국고보조는 삼일총독부에서 다음과가티 지령을 발하얏다

京城府	二千七百四圓
仁川府	二千二百九十七圓
群山府	七百六十九圓
木浦府	九百十二圓
大邱府	一千三百二十七圓
釜山府	二千一百二十七圓
平壤府	二千九百四十三圓
鎭南浦府	九百十一圓
新義州府	一千八十九圓
咸興府	八百五十七圓
元山府	九百八十二圓
興南邑	一千六百十一圓
淸津府	一千一百八十四圓
計	一萬八千七百十三圓

謝禮金보내온 救助된支那漁夫

지난 일월상순경 전남 제주도 서귀포(西歸浦)서남방이십오마일의 해상에서 지나어선이조난당하야 선체는 산산히 부서지고 산동(山東)출신의 선원들은 표류중 때마침 부근에 고기재비중이든조선어선에게 구제되여 전남제주도 경찰부와 경성총영사관의 알선으로 이지음 무사히 본국에 돌아갓는데 구사의 일생을 어든 지나인어부들은 이들조선어부의 구조에 감격하야 령사를 통하야 최근 일금을 감사의 뜻으로 보내왓다 이것으로 도대다감동하여 즉시전남경찰부에 보내여 구조어민 제주도어부에게 보내기로하엿다

스템프備置增設

철도국에서는 종래에 수원(水原) 경주(慶州) 불국사(佛國寺) 개성(開城) 대구(大邱) 석왕사(釋王寺) 선천(宣川)등관계역에 명승연명(名勝○名)『스템프』를 비치하야 려행객에게 리용케하여왓는데 이번에 그외에를 더늘러서 삼랑진(三浪津) 온천(溫泉) 토성(土城) 사리원(沙里院) 구장(球場) 묘향산(妙香山) 양덕(陽德) 복계(福溪) 정읍(井邑) 사가리(四街里) 전주(全州) 려수(麗水) 구례구(求禮口)등 십삼개역을 추가하야 역시『스템프』를 비치하기로 되엿다한다

兩高普에委囑

崇中崇義新入生募集

崇專校舍借用問題는近近落着 ─그後의平壤三校─

【平壤】숭실전문(崇專)문제는 대동공업(大同工業)으로 숭실중학(崇中)과 숭의녀학교(崇義)의평양공립고보(公立高普)로 환신하기로된것은 도당국의방침이 확립되여 의심할여지가 업는터이나 최근 전하는 바에따르면 대동공업은 학교기지(基地)와 교사(校舍)문제가 결정되는대로 설립인가원을 제출하게되면 일사천리로 해결을 짓게되엿고 숭중은 신설교(新設校)로 개생을보려니와 숭의학교는 완전히폐교하고 현재의 평양녀자고등보통학교에 일의년을 증가한명하기로 될터이라한다

그리고 신입생모집은 평양고보와 평양녀고보의 입학시험을 실시할때에 평양고보에서 정원이백명외에 다시백명을 평양녀고보에서 정원백명이외에 다시 오십명을 모집하여 총독부당국에서 인가가되는대로 숭중분은 신설제이고보교에 숭의분은 평양녀고보에 편입시킬의사를 가지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삼교교사대용문제는 현지 선교회에서는 쾌히승락하고 도라갓스나 아직미국외지전도국으로부터 하등의회훈에 접하지못햇다하여 정식의 회답이업서 그대로 기다리고잇스나 회답이 천연되여 신모집생도의 수용에 지장을 이르킬경우에는 삼교폐교인가를 하지안흔가 그러치안흐면 현재의 재적생을 졸업시킬때까지 책임을 지우도록할의사를 가지고 선교회에 련락하고잇슴으로 결국교사대용문제도근일락착을 지울것으로 보인다

質問條件은 道當局에一任

崇專教授會의三個條件質問과 魯解理氏의回答

【平壤】기보=숭실전문학교(崇專) 교수회에서는 지난달 이십륙일 조선선교사회 실행위원장 해리(魯解理)씨에게 현재생도를 졸업시킬때까지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른학교에 전학시킬터인가 이것까지 불능하다면 각자가 지원하는학교에 취학하도록 경제적 보장(補償)을 할것인가 등세가지 조건을 질문하엿든바 수일전 로해리씨로부터는 전부를 평남도당국에 일임햇스므로 자기로서는 어떠라고 대답할수업다는듯의 회답을 우송해왓다

政務總監으로부터 兩團體에感謝狀

성상폐하어성혼기념하사금을 기금으로한 동경은사재단경복회(東京恩賜財團慶福會)로부터 ○천원 원홍지은행전무원전용(元濟南銀行專務原田○)기념사회사업자금으로부터 오백원을 적기경복회를 통하야 다음과 가티 조선에삼개사회사업단체에 기부하엿스므로 삼일총독부에서는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의 명의로 이상의단체에 감사장을 보내엿다

二千圓	京城佛敎慈濟院
三百圓	平壤孤兒院
二百圓	平壤養老院
計	二千五百圓

煉炭에中毒되여 母子가또慘死

=水銀治療하다가中毒한女子도잇고=

頻頻한橫死事件

비명에횡사한 불상한생명들= 시내신공덕정(新孔德町)삼십번지의 사십사호 김봉남(金鳳男)의 어머니 박씨(朴氏)(七○)와 그의장남 종선(鍾善)(二○)은 이월이일 오후네시에 온돌방에다 연탄을 피고자다가 무참히도 까스중독으로 두사람이 절명되고말앗다

◇시내아현정(阿峴町)오십팔번지의구호에사는 박영길(朴永吉)의처 리덕순(李德順)(二○)은 일개월전부터 림병(淋病)에걸리여서 고생하여내려오든중 동내사람들에게서 수은(水銀)을 먹으면 완치된다는말을듯고 일일이십구일 오후여섯시경에 수은을 먹고 중독이되여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明日은立春! 치위도잘가거라!

래일은 사일─벌써 립춘(立春)날이다 이번 겨울이 몹시춥다고 떠들든것도 제는 대하이지나고 립춘이 왓스니 추위도 다갓다 이로부터 드디여 대망의봄철이 차저온세음으로 이제부터 일진의동풍이 건들들어서 그리케도 단단하게붙엇든 어름이 풀리기시작하고 오랜 동면(冬眠)에서 버러지들이 기운을펴며 꾸물들립 날로 코아메닥처와다 집집마다 써부친 립춘대길(立春大吉)건양다경(建陽多慶)등 문부도 이봄을축복하듯 립춘마즌 양당에 새삽(新)빠락이고잇다

殺人未遂放火罪로 不義外叔送局

樓上町嫉妬放火事件

지난달이십오일 오전열한시부내루하정(樓下町)사십일번지의삼호 복덕방 정상호(鄭相鎬)가 세살때부터기르든 처족하 리순이(李順伊)와 삼년전부터 불의의관계를 매저오다가 순이가 기생노릇을하게되여 부산사는 곽모(郭某)와사랑을속삭이게되자 중년의사랑을빼앗긴 그는 차라리순이를 태여죽여버릴 무시무시한계획을품고 집에불을질러 새로드러잇든 남의집한채만 날려버린사건은 그동안본서에서 취조한결과 이자는집에불을질르고 순이를홧부에는 곳뒤미덧스나 실패를본뒤에는 곳뒤산으로달려올려가 죽을려고 목을매엿스나 괴로워죽지도못하고 그길로달려내려와 부근파출소에 자백한사실이드러나 결국마음와한남자의표본이라는 렌텔을친채 방화, 살인미수라는 무시무시한죄명으로 사일송국하기로되엿다

上告共犯無罪로 服役中再審請求

住居侵入强盜罪로몰린服役囚

再審의結果가注目

자기에게는 아무죄도 업섯스나 경찰의엄중한취조에 견듸다 못하야 하지도안흔사실을 자백하야 남든사람두명과 세명이공범으로 몰리여 주거침입강도(住居侵入强盜)죄로 일심에서 모두징역오년판결을밧고 다른사람두명은 고등법원에 상고하엿스나 자기만은 상고하여도 리익이업다는 가른감방에잇는 사람의말을듯고 억울함을참고 그대로복죄하얏는데 상고한다른두명은 고등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무죄백방이되엿스니 다시사실을심리하여달라고 확정판결을 밧고 복죄한지 일년이개월이 지난금 삼일에확정판결을바든 경성복심법원에재심(再審)을 청구한죄수가잇다

그는 전기한바와가티 주거침입, 강도죄로 재작년십일월칠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오년판결을밧고 방금 공주(公州)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충북 제천군 덕산면 황해영(黃海榮)으로 재작년부터 ○년징역까지사이에 그동리 리덕인(李德仁)、정해수(鄭海守)두명과 공모하야 그동리 신부봉(申富鳳)의 집에 세번이나 침입하야 쌀과 개고기얼큰을 강탈하엿다는것으로 일이심에서 세명이 모두 징역오년판결을 바덧는데 그는 상고하여도 별리익이 업슬줄 알고 그대로 복죄하여왓다 그러데얼마전에 자기집에서 편지온것을보면 상고한리덕인과 정해수는 무죄백방이 되엿다하니 자기는 그들과가티 범죄를 하엿다는것이고 도사실죄도업슨즉 다시심리하야 내어달라는것이다

이사건은 정해수、리덕인두명이 작년사월이십구일에 고등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받을때에도 그공범으로 복죄한 황해영은 어떠케될가하야 자못주목을 끌든사건으로서 외공범두명이 무죄백방이된지 십개월이지난 오늘에야다시 문제가되므로도게된만큼 이재심청구사건은 어떠케귀결될가 더욱일반의 흥미를끈다

出願中의五個私鐵 許可를愼重調査

南海、臨海、京利軌道、京金電鐵、北漢索鐵等

殷盛한鐵道事業界

조선의사업열은 점점 왕성해저서 각지에여러가지 공장도 만히생겨나고잇거니와 철도사업에뜻을 두는이도 점점만하지는 현상이여서 현재조선철도국에 면허(免許)를 출원중인 것도 오육개처나된다 즉 학교(鶴橋)정읍(井邑)사이의 남해철도와 통영(統營)마산(馬山)사이의 림항철도(臨港鐵道)와 경성리천(利川)사이의 궤도철도와 경성포천(抱川)및 금화(金化)사이의 경성기철도와 효자정(孝子町)에서 북한산(北漢山)에 이르는『케불카』등인데 철도당국에서는 이런교통및 산업개발에 편의을끼치게될 철도가만히 생기게되는것은 기뻐할일이로되 시국관계로 자금조정법(資金調整法)적용의 난관이잇스므로 비록 면허를하드라도 즉시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게될것이 잇슬것을 우려하야 여러가지사정을 조사하야 그면허에대한방침을 연구하는터이라한다

定期航空을開始

北支와日本內地間

福岡→青島→天津→北京間

【北京二日發同盟】북지와 일본내지를 련락할 항공로선은일즉이 일본항공회사와 혜통공사(惠通公司)사이에 계획이 진전중에잇섯스나 드듸여 이달부터개시되어 그제일편이 일본으로부터 화객을만재하고 천진에도착하엿다 이항공로는 복강(福岡)에서 청도(靑島)천진 북경(北京)사이를 혜통공사에서 분담하야 복강출발은 일(日)수(水)금(金)삼회 북경출발은 월(月)화(火)목(木)토(土)삼회로 발착시간과 일반의 려객료금은 다음과갓다

一、往航 福岡發午前九時四十分 靑島發午後二時三十分 天津發午後四時二十分 北京着午後四時五十分

一、復航 北京發午前八時 天津發午前八時三十分 靑島發午前十時二十分 福岡着午後一時三十分

一、料金(旅客) 福岡靑島間八十五圓 靑島、天津間六十五圓

一、(貨物)(一키로) 福岡、靑島間一圓五十錢 靑島、天津間一圓三十錢

一、其他航空郵便도取扱豫定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蒙古方面으로부터 滿洲朝鮮을거처 本州方面에 엎어지고잇다 渤海及滿洲中部는 弱한低氣壓이잇고 滿洲朝鮮은 개이고 日本內地는흐리고 日本海方面及東北地方에는 處處에 降雪이잇다 一般으로 추이는풀리엿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흐리고 小雪이나릴모양이며 京畿道全區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 零下一度四 同最低 零下五度一 今朝最低 零下十二度二 今日正午 零下四度六

運動競技

延專籠球部主催로 中等卒業生歡迎戰開催

來五日午後七時鍾路靑年會

延專籠球部에서는 年中行事로 開催하는 第七回 延專先後輩大會와 市內中等校今春卒業生選拔軍歡迎籠球戰을 來五日午後七時부터 鍾路靑年會館內코ー트에서 行할터이라는바 當夜의『푸로그람』은 延專卒業班對在學生、職員對卒業生、白熊對延專現役軍、延專對中專卒業生選拔軍戰等이며 興味津津한 ... 三回咸興、興南遠征戰은 오는 三月廿日에 擧行키로 役員會에서 決定되엇다

白狗씨슨·업 來五日淸凉里링크

白狗滑氷俱樂部의今年度『씨ー슨·업』은 來五日午後四時부터 淸凉里링크에서 行할터이라는바 이날은 今씨ー슨 最終의記錄會를 열터이라하며 部員은 無漏參集하기를바란다고한다 (會費三十錢)

咸興、咸南驛傳競走

【咸興】咸南體協主催의 ... 除興도 잇슬터이라한다

治淋特效藥 治淋特效藥 治淋特效藥 治淋特效藥

G-U-사이드 의偉効
(지유)

社會病患者에게一大光明!

G-U-사이드가 從來의治淋劑와는 全然其類를달리한 新發見의特効門子를合有한 治淋特效劑로서 現今全世界治淋界에 一大센세이슌을惹起한것은 續續發表된 諸臨床報告로써 證明할수잇습니다。

G-U-사이드 는服用도極히簡便하여 胃腸을害치안흐며 急慢性을不問하고 大槪服用三日乃至七日이면 疼痛排膿이中止되여 迅速한効果를奏하게되니實로 本劑의出現은 社會病患者에게一大光明이라고할수잇습니다。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합니다)

有給社員招聘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七三
太平生命京城支社
左ニ依リ採用ス 應募者ハ履歷書持參ノ上來談アレ
一、年齡二十五歲以上ノ男女
一、募集人員若干名
一、住所京城府內
京城府鍾路二丁目五七 (三一商會)
日本生命出張所
電話光化門(3)二六八五番

看護婦及見習者採用希望者 要求談
堅志町七 吳元錫醫院

社員招聘
兒童的小兒敎護保險勸誘開始 努力家를求む 履歷書持參來社又は郵送の事

家具
事務用椅子卓子書棚 陳列戶棚 豊富 有特安價
京城本町三丁目
根商會

朝報案內

恩給
鄭商會

好壽敦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一年生約百名
出願 三月四日限
考査 三月八、九、十日

京城府仁寺町一五三ノ三
相學家 水山 姜南會
오래동안 漂浪하든 나는 이제 자리를 잡엇다

鉱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

山崎仁壽堂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電光化門二五二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4日ヨリ

この現實の姿こそ萬人の胸に……仰望映畫週間

沈默の愛情

松竹大船作品
永い人世を一夜に縮寫せる尊き親として の人情劇の一片!
老役競演四人男
上山草人・坂東好太郎・笠智衆・水島亮太郎・坪內美子・忍節子

特輯 ニユース

早朝興行 午前十時開場 十時四十分開演

明治座

事變畫報

002557

寫眞說明 (1)눈(雪)우에서 食事를準備하는 將士들 (一月二十二日膠濟線에서) (2)即墨治安維持會會長張子安氏(一月二十四日) (3)濟南總領事館開館式(中央에眼鏡쓴이가 有野總領事—一月二十二日) (4)前線兵士의雪戰(膠濟線에서 一月二十二日) (5)海軍旗날리는 團島燈臺(一月二十五日) (6)山東頭村으로 陸戰隊

家庭

어린애기 일저지른다고 훌쫓지마십시요

어른의말잘드기는숭내내는데서 심부름식히는훈련

아이들은 어른이하는일을 거들기조와합니다. 어른의일을 거들생각이 아직들지안흔 네댓살된아이들도 어른의숭내내는것을 퍽조와합니다. 모방, 즉『숭내내는것』이라는것은 본능이며 또한노는것이라고할수잇습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어머니의 일르는말을안듯고 일을거들지안흐니 이건날븐애가아니냐하시겟지만 실상은 어린애에게 허물이 잇는것이아니고어머니에게잇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일에거들라고 어린애가 덤빕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일을저지르려니하고 쪼차버립니다. 가령말하자면 어머니가 빨래를하고잇슬때 어린애가 자기도 수건가튼것을가지고와서 가티빨라고듬니다. 그때에어머니는 일저지른다고 소리소리질러쫓습니다. 이러고서야 정작필요한때 심부름이거나 일을거들리가만무한니다.

그런즉 일거드는 조흔습관은 일에방해될듯한 경우에 잘양성시키지안흐면 안됩니다.

먼저말슴드린경우에 현명한 어머니라면 어린애를쫓차버리지안코 다른그릇에물을떠주어 거기서 빨래를하도록 시킵니다 물론 그빨래질이 오죽하겟습니까만숭내내는것으로만도 조습니다 이러케하면 어린애의 모방욕을 만족시키고 게다가 어른의일을 도와드렷다는 기쁨을 갓게됩니다 이기쁨을 더 더주는 표적으로 어머니는『아이참 고마워라』『참 잘하는데 애썻구』『어디가 빨면이어야하겟군』 이러케 칭찬을해줍니다.

어린애는 제하고싶은 작난을 한것이니까 이런인사의말들이 필요치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마워라는말한마디로해서 어린애는자기의일에 자신을갓게될뿐더러 이런일을함으로써 어머니께서 나를 희롱히사랑하신다하는 만족을 늣기게됩니다.

아모리 어머니가 밥버서 먼저와가티 다른그릇에물을떠줄 친절이업더 치더래도 함부로 회초리다시피해서 쫓차버릴것은 아닙니다 즉그런일을하러다 쫓겨왓다 매마질번햇다 하는생각이 어린애머리속에 남도록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경우에는『가만잇자 요다음번에 하기로한다구응』 이런투로 잘달래는것이조켓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어른의심부름을 왜조와안는냐하면 어른들이 평소에잘 훈련을하지는안코 자기의필요한때에만가서 라산적으로 부려먹을라고 드는까닭입니다. 그다음에는 열의힘 박게업는아이에게 열의힘이 다드는일을 식히랴고하니까 잘못합니다 열의힘이인는아이에게 심부름식히랴면 다섯이나여섯의힘을드러 될만한일을맥기지안허서는안됩니다 그다음에는 무슨일을 자기가하게되는지 그일의역할을 분명히알도록해야합니다 즉『콩을사오너라』 이러케만일러주는것보다는『콩을사오면 저녁에 맛잇는콩자반을먹게되는구나』 하는것을알리면 심부름하기에 더신이 날것입니다.

애가 일을 잘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방을쓸때 어린애도 빗자루를들고 나서서모아노흔 쓰레기를 되려 허트리는수가 잇드란도 꾸짓지말고『애 너는 마루쓸고 나는 방을쓸고할까』 이러케해서 일의 방해안되게 마루로 내미는것이 어린애 심부름 잘 시키는훈련의 비결이 될것입니다.

눈뿐만아닌 눈의숨은공

녹인물은약에도쓰고 맛번한장맛도돌린다

겨울철에는 눈이 한창치올시다. 산이나 들이나집웅이나 나무가지나 모도가힌눈으로 더핀것을 볼때는퍽유쾌한생각이 듬니다. 그러나 눈은 단지 보기에만 유쾌한것이아니라 여러가지로유익한점도 적지 안습니다. 첫재로 눈이 잔뜩 싸히면 땅의 온기가 찬바람에빼앗기지 안키때문으로 나무며 풀뿌리 빨리가 잘얼어죽지안코 둘재로 눈녹은물이 고이여 초목의 가물을면하게하고 셋재로 눈이 만히오면 해충이 잘 번식치못합니다. 눈을 가지고 풍흉을 점치는것도 파히 거짓말이아닙니다. 눈이 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빨래를 임래로 싸히는 눈을 보시고 반색하는것도 파이치는안한노릇입니다. 그나 그뿐인가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눈을 만히 이용하시는 경우가잇습니다.

눈을 바다서 녹인 물을『눈석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눈석인물』은 약을 조제하는데도 쓰고 빨래를 하는데도 쓰고 또 그이외 여러가지에 씀니다. 거기는 다소의 미신도 부허겟지요만은 허어도 기와스늘에서줄 려나리는 빗물을바더쓰는것보담 깨끗하지안할까고생각합니다 물론 눈에도 몬지등속의 다른물질이 석기어잇다고는 하지만은 중류수빼노코 비교적 움이나 샘물보다 다른물질이 만히포함되야잇지 안키때문으로 약을 조제하는데 취한것이 아닌가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조치서『눈석이물』을 맨들어서 어것저것 하시는것은 무방하되그러타고 함부로 아모데나쓰이 힌눈을 가저다가 더구나 약을 조제하는것은 빨래를 빨는것과도 달러서 좀 깨끗한 장소를 선택하시는동시에우 물것고 아래를 내던지어그 중간것을 취하시지 안허서는 안됩니다.

그러나『눈석이물』로 약을 조제하거나 빨래를빨다거나 하는것은 별로 큰의미가 업습니다 그보담은눈을가지고 장맛고치는 방법이야 말로 필요하고도희한한 지식이올시다 그러면어떠케 고치는냐고요? 본래장이란 일상 담그는것이지요만은 흔히 물과 간을잘마치지 못하거나 맛이 들만큼 적당한 시간을 경과치 못한때는 짜고쓰고 고리고 가지각색의 병통이듭니다 이러케 장맛이 한번 글러노코보면 모─든 음식의 맛을 전부 요절내버리는 폐입니다 아니 그러니그장맛을 어떠케고치느냐는 말인가요? 눈이올때 도두게들 여러제치고 아조 어느정도까지 홈백 눈을 마치어둡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야릇하게도 장맛이 살짝되도라오게 됩니다 간장도 그러코 된장도 그럿습니다 단지 눈을너무 지나치게맛치어서는 된장이 무장이되고 간장이 냉수가될듯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차리우

산에올라서

나는 하로에 한번식 뒷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오로자면 힘이 도러도 내려다 보는 맛에 안오르곤 못백인다.
세상이넘게보인다.
시원하다.여간적은것은 눈에 풀지도안는다.
나뿐인것갓다.

(공주사립유이준)

送別歌

一、기약업시 서로만나서 어느결에 정이들엇고
아침저녁 마주안저서 눈물과 우슴홋바꿧네
잇지마오 벗님네들 어듸로가나 서로잇지마오
잘가시오 벗님네들 편안히 가ㅣ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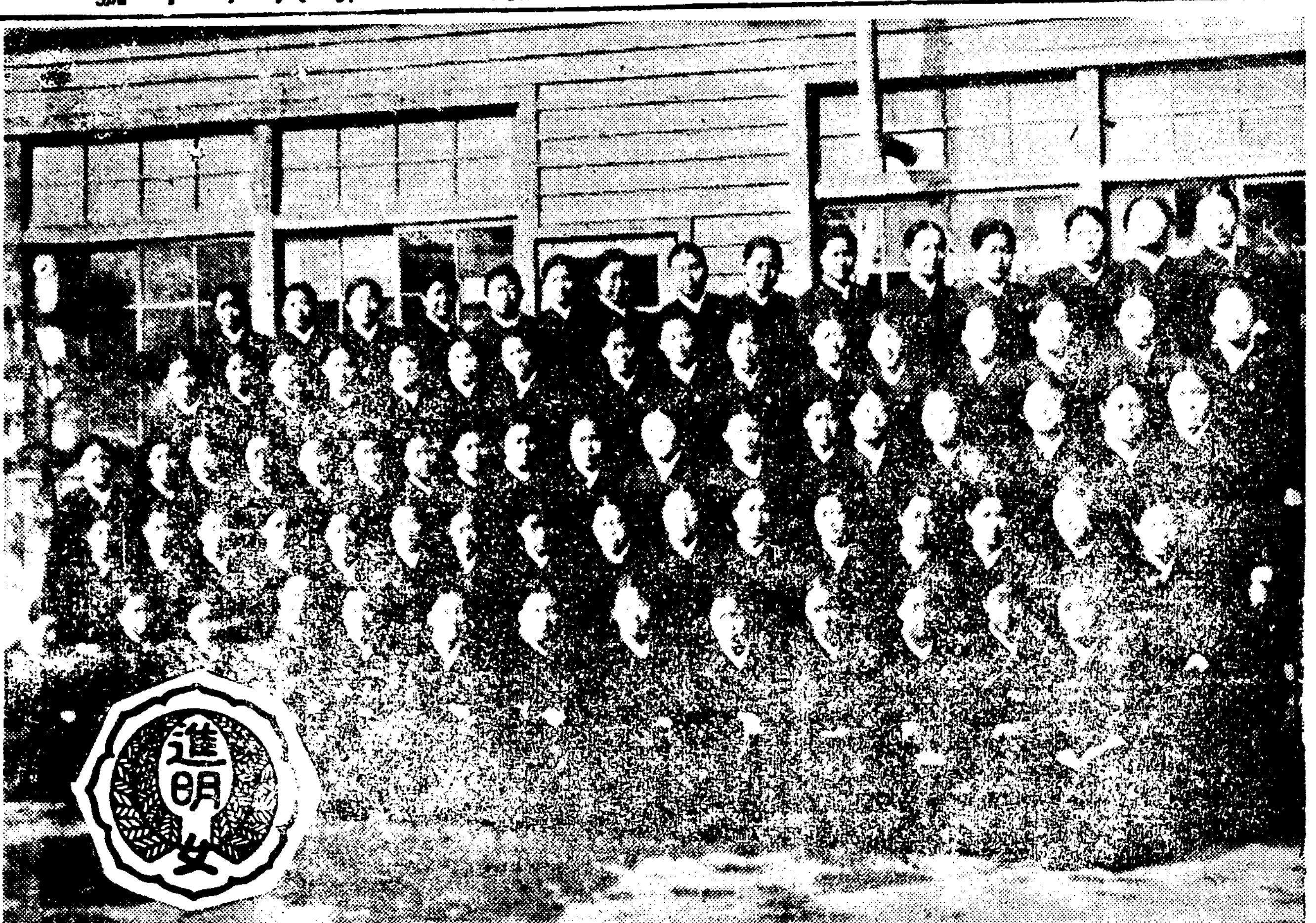
二、기약업시 떠나는것음 어느적에 다시만나리
조흔마음 변함이업시 이겨레 위하야일하오
잇지마오 벗님네들 어듸로가나서로잇지마오
잘가시오 벗님네들 편안히 가ㅣ시오

경성안녀학교 졸업생 ALBUM

제복 벗는날에 드러날 색씨티

수수한옷에실속들이차잇다 마음쏠리는곳은가정

進明女高



봄은 학원에 먼저 들어 언제나 이맘때가되면 각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을 내보내는일로 자못심난하고 또 떠내보내는이와 떠나는이들이 느끼는 서글픈 감정을 우리도 느끼게되는데 그러면 이봄에 나올 새 일꾼들은 어떤분들인가 시내 각여학교를 찾기로햇습니다 우선 긴 역사를 지니고 잇는 시내 창성정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를찾고 면철잇스면 진명의 제복을 벗고 교문을 나설 졸업반의생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왓습니다.

금년졸업생의 총수는 송조(松組)와 죽조(竹組)를 합해서 팔십구명이라는데 기자는 잠간 담임선생에게 금년졸업반의생들의 특질이라고할 만한것이 무엇이냐고 무러보앗습니다.

언제나 얌전하다는 일반의평을 듯는 진명녀고 학생들이니만큼 해마다 나는졸업생이 거세다든가 란폭하다든가해서 선생님들이 여기 걱정을 하신적은 물론 한번도 업거니와 올졸업반들은 유별나게 얌전하고말을 잘들어서 그야말로진명의 정신이라고 할만한정숙온량(貞淑溫良)의 정신을그어느해 졸업생보다도 가장 잘 표현하고잇슴을 본다고합니다.

어찌보면 너무 양(羊)가티서 우유부단(優柔不斷)에 빠지는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은 결코그러치는 안코 다만 어디까지나 여자다운 미덕을 가추운 색씨들이라고합니다.

그러면서도 전교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도 이반에 제일만흐며 송죽조(松竹組)를 합해서 우등생도 상당히만허 선생님들에게 귀염을만히 밧고잇답니다.

또 행운이엿다고 할만한것은 이번 졸업반의생들은 진명녀고에 들어와 오는까지 사년동안에 전체로 보아 별 어려운일을 당하지 안코 보다는 누구네보다도 만흔 경사(慶事)를 당햇스니 개교삼십주년 기념식(開校三十週年記念式)이며 엄교장 동상건립(嚴校長銅像建立) 전람회등 이기쁜일들을 치른『럭키·클래쓰』라고합니다.

어느 지방(道)사람이 만흔가를 잠깐 살펴보니 단연 경기도가 우세요 지방에서 온 사람은 열여섯명에 지나지안는다고합니다. 그럼 그들의 졸업후의 지망은 어떠한가?

연습과─스물세명
동경유학─두명
경성녀자의학전문─두명
취직지망─여섯명
가정─오십명

아직확실한 결정이라고는 몰수업스나대강 우선드러온 보고에는 이상과 갓다고하는데 이번 졸업반에서 재원들을 무르드니 우선 공부성적으로는 김숙자(金淑子)양과서상숙(徐相淑)양 로영하(盧永夏)양 김정우(金貞祐)양등이 운동선수에도 뛰어나는 사람들이며 자수(刺繡)에잇서서는 변동숙(卞鍚淑) 김정우(金貞祐) 김숙자(金淑子) 양등의 솜씨가 놀라우며 운동에 잇서서도 전조선대표(全朝鮮代表)로 동경(東京)에 원정(遠征)까지 갓든 정구선수김정순(金貞順)양이 잇스며 조선지승영기때빼쓰켓에 우승한진명군(進明軍)속에는 대부분이 이번 졸업생이엿다고합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생들로는 놀라울만치 문학(文學)에 소질이 잇는 장창숙(張昌淑)양과 박춘일(朴春日)양등이잇는등 이번 졸업생에는 자랑하고시픈 학생이너무도만타는 선생님들의 말슴입니다 하화와씨이래이욱자 칭칭대에서 내려오는 순직(淳直)한 학생들은 얼골보다졸업반의 생들이 어린은것이 어서다섯슴니다. 점심먹고 나오는그들은 돌릿다가는 양지를차저가 서로 말이어서 서어는데는 어듸지 모르게 엇마안잇서 교무를나슬 서운은 에수와함께 또송명하게 바까기는듣에는 새로운 생활에대한 마음의준비가 그어느구석에 숨어잇는것가티 보엿습니다.

다음은 이번졸업생들 (松組)

安熙妫 韓玉順 金蘭玉 金福得 黃龍順 崔漢淑 朱漢珠 韋降福 金金珠 金錦瑚 嚴玉貞 吳臣姬 崔庚淑 全貴福 尹貞元 金在姬 金仁鳳 元會瀾 吳正貞 崔英玲 張基男 禹錫玉 金淑子 金貞姈 洪英喜 禰瑞姬 崔世英 張順熙

(竹組)

趙昌淑 朴紅子 卞錫淑 李鍾淑 盧永夏 安相俊 禹鍾根 金英子 金庚子 洪潤球 成架貞 全玉順 太露玉 朴在連 柳熙 李敏元 沈相武 朴太順 李鳳熙 李貞熙 黃玉模 尹愛重 韓玉貞 金海龍 金鶴姸 權孝順 全華淑 沈相玉 鄭明瓦 朴仁順 劉成仁 李福重 鄭德讓 朴有順 李主璋 李点石 尹慈淑 韓末愚 金已玉 金貞順 崔明子 宋月來 鄭東福 趙玉卿 朴春日 李錦姸 嚴弘來 朴桂順 陸錦珽 李錫酉 林相仁 尹福姬 金永熙 金玉培 金貞祐 徐相淑 孫貞玉 張順姬 朴桂任 兪春英 李丙姬

사진=맨위는 전졸업생. 그다음은 교표와 교복, 그다음은 기숙사생활의하로, 이학교의 자랑인의생작품

교표 전체의모양은 옛날 거울형을본것입니다 그안에 치라(緻采)라는 나무가지가『進明』두글짜를 차고잇스니 이풀은 신선의풀이라고 해서 눈과서리를이겨 언제나 푸르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 백절불굴의 의기를표시한것입니다.

교복 새깜안치마에 힌저고리, 옷중에는 가장탐업는 녀학생의 특권을 충분히나타낸것이라하겟습니다. 치마단에 두른 힌줄을, 하나는 검소질박을 의미하고 하나는 오랑경숙의 정신을 말한것입니다.

대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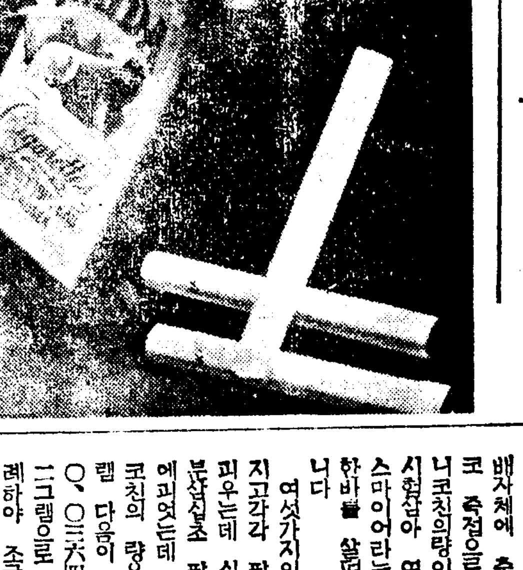
시골 정거장 대합실에서 오래도록기차를 기다리다가 기차가 제시간에 오지를 안흐니 손님이 화를 벌컥내면서『여기 기차는 언제나 제시간에 맛게 오는일이 업스니이』하고 정거장 역부에게 호령을 하얏습니다

『그러기에 대합실이 잇지 제시간 꼭꼭오면 고양이 낫잠자라고 대합실을 지어둔단말이요』하면서 되려소리를노폇습니다.

(경성율이가)

담배는 천천히 빠라야 해가덜돼

보기에궁상스런꽁다리 피우면해를더만히바더



술과 담배가 인이 백혓는데 술은 끈흘수잇서도 담배만은 어떠케 할도리가업다는 사람이 만습니다. 될수만 잇다면 다른사람이 끈흐라고 권치안허도 자기자신부터도 해롭다는것은 잘알고잇스니 끈허보라고 애를쓰기는 하나 이것은 좀처럼 실행되는일이 아닙니다.

아모리 해도 끈흘수업다고하면 피우는 담배의 여러가지성분속에서 주장 생리적으로 조치못한 영향을주는 해로운 니코친을 어느정도까지 적게할연구를 해보는것이 필요한데 이것도 정도문제입니다 니코친을 전부 제거(除去)시키면 담배맛이라고는 도모지 나질안흘러이니 적당한량으로 조절한는것이 올흘것갓습니다 니코친을 조절하는데는 담배 파이프속에다가 활성(活性)아루미나 경석분(輕石粉) 미리카겔등 여러가지약품을너허서 여기에다가 니코친을흡수시키는 방법도잇스나 이러케 화학적으로 걸르면 담배사체가 가지고잇는 특유한향기가 거기에 흡수되여서 천연맛이업서지고 또한날씨마다 이러한 수속이 걸리여서 대단히귀찬습니다.

그래서 제일편리한 방법으로는 천천히 피우는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빨아다가 지랄고 될수잇는대로 천천히 피우는데 그리우는 담배자체에서 연기가 통과하는사이에 흡수되는것으로서 속히피우면 담배자체에 충분히 흡수되지안코 즉접으로 입에 드러가는 니코친의량이 만흔것입니다. 시험삼아 여기대한 미국의리스마이어라는 화학자의 실험한바를 살펴보면 다음과갓습니다

여섯가지의 보통궐련을 가지고각각 팔그람반의 분량을 피우는데 십이분 십팔분 구분삼십초 팔분삼십초의 시간에피엿는데 입으로통과하는니코친의량은 ○、○一八二그램 다음이 ○、○二七五그램 ○、○三六四그램、○、○四三一그램으로 각각 시간과반비례하야 조급하게 피울사록니코친의량은 만허집니다.

그다음에는 끗까지 피우지말것입니다. 담배를 앳겨서피운다는것으로 끗까지 피우는사람이 만흔데 이러케하면담배가 흡수해가지고 잇는니코친이 끗트로끗트로 모여잇는까닭에 그만큼니코친의 분량이만슴니다.

그러나 끗까지 피우지안코 버리는것은 위생에는 조흐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허비한것이라고 생각하거든 파이프속에 알루미늄의 스폰지이나 솜을 끼워서 피우도록 하시요 이러케 하면 드러가는 분량이 적습니다 그보다 더욱리상적인것은 파이프의 주둥이속에 권연통갱이를 꼬저서 그우에다가 피우는 담배를 꼬저피우는것이 나은담배를 조습니다. 대체로보아서 경제도 경제거니와 끗까지 이러케 고생스러이 피우면 손구락에 노랗게진이배고 여러사람아페서는체면에도 여하하지안흘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적당한정도로피우고는 버리는것이 신사의체면에도 조흐며 위생상으로도 해가적을가 생각합니다.

혓바닥을보면 병을짐작해

의사아니래도알수잇세요

의사의 진찰을바들때에 의사는 체온을 검사하고 맥을보고한뒤에 반드시 혀를내밀라고해서 유심히봅니다 혀의 변화에따라 병의진단을 할수잇슴만큼 혀는진찰하는데에 매우중요한가티가잇는것입니다

먼저 건강한혀바닥은 분홍빗에 약간자수빗을 띠우고도 혀바닥표면이 약간 회백색이며 혀끗으로 갈수록붉고 일반적으로 축축한 기가잇습니다 혀의운동은 극히 자유자재이지만 박게내밀때도떨리는일이업습니다

그러나 만일이러치에 다른이상이 생겻다면 확실히 몸에병이잇는것입니다

즉혓바닥이 하야타거나검은두런운 백태가끼다거나햇슬때는 내장에고장이 생긴것을 표시하는것이며 특히 그백태가회백색이며혀의전체에 틀씨워스며 속으로드러갈수록 두터울때는 급성의위카다루 또는 소장카타루가 잇는증거입니다.

위산과다스층 위괴양 장카다루등의 경우에는 대개 혓바닥에 태가끼지안흐니까 이러한병의 감별을할수잇습니다 특히 위암 간장병의 경우에는 태가 그다지 만히 끼이지는안흐나 혀의표면이 빨가케되여 건조해집니다.

임신중에 충치돼

아이를 배면 이가 탈이난다고 허는말은 옛날에도 잇섯습니다. 임신중 아무리 이를 정결케하고 조심해보앗스나 충치에걸리운 사람은 업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회의 임신에 충치가 세네개로 부러심하면 열개까지 생김니다. 아모리 하야도 피할도리가 업는것으로알리워저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틀린 생각입니다. 임신에만 주의하면 결코충치에 걸리지안습니다. 즉 이는 칼슘과 린(燐)비타민으로 되여 잇스므로 이것을 충분히 보충해주어야합니다

대체 임신하면 어째서 이가탈이 나느냐 하면 태아의 뼈의 구성을 위하야 다량의 칼슘과 린이 필요하게되므로 모체가 충분히 이것을 보충할만한 영양소를 섭취하야 태아에게 꾸준하지못하면 태아는이 영양소를 모체에서부터 탈수해 오는것입니다.

童話 성탄전날밤

崔秉和

그것은 크리스마스 전날밤이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마지하랴고 그순비에바쁜데 봉희(鳳姬)는 병으로해서 자리에 누어잇섯습니다. 십이월 초승게 우습게 감기가들린것이 이내낫지를못하고 손곱아기다리든 크리스마스 전날밤이되기까지 자리에 누어잇지안흐면 안되게되엿슴니다.

머리마테는 아까 동무가가지고온 아름다운꼿다발이 화병에 꼬처서 고흔향기를 퍼트리고 잇섯습니다. 봉희는 동무에게서 그꼿다발을 처음바더슬때 펴도고 맘고조와서 자기더운 뺨에다가 대엿다가는 떼고 대엿다가는 떼고 하엿는지 몰랏습니다.

봉희가 지금 그꼿을바라보고 잇스려니깐 거미한마리가 그꼿다발로 기여올라가드니 다시 벽을타고 천정으로 술술 올라갓습니다. 그러자 또 얼마안되여서 그거미는 줄을 내려와습니다. 봉희는 어미가 무엇을하나하고 물끄러미 바라보앗습니다.

거미는 쉬새어지 이리케 꼿병과 천정사이를 오르고내리고 내리고오르고 하드니 가로세로 줄을처서 거미집을 엮거노핫습니다. 거미집은 전등불비처서 담다박에다가 커다란 그림자를 그려노핫습니다.

봉희는 혼자서 『참, 재주도 용하다』 하고 자미잇게 바라보고 잇는데 그거미집이 한가운데서부터 점점 은비츠로 변해오지안켓습니까.

바삭! 바삭! 은비츠로 빗나는 가느다란 은실거미집은 여트에 이슬방울 그거미집보다도 더한층 곱고 깨끗하게 보엿습니다 봉희는 그것을보고잇스려니깐 답답하든 가슴속이 시원해지는듯 하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도 차츰차츰 가시여가는듯이 생각이 드럿습니다. 그러는동안에 은빗거미줄은 서로 얼크러지드니 은빗 별로변해것습니다. 은별── 그것은 참말 아름답게 비처서 원방안을 환하게 하야주엇습니다.

봉희는 하도 신기해서 『참 곱기도하다』 하고 말하니깐 또 변하지안켓습니까. 그은별 한가운데서 어여쁜 별아가씨들이 차례차례 뛰어나와습니다. 별아가씨들은 모두 열두사람이엿습니다.

그별아가씨는 모두 살이 내비칠듯한 흰보드라운 옷을입고 이마에는 열두달을 제각기 알려주는 화판(花瓣)을 쓰고 날신한 발에는 구슬로멥습니다. 그별아가씨들은 어대로선지 들려오는 음악소리에 마처서 꾀꼬리가티 노래하고 나비가티춤을추기 시작하엿습니다.

타라라리라라라
라, 라, 라,
온들밤은 즐거운크리스마스
우리들은 별의딸들
노프리하늘의 별의딸들
아득한옛날 그때그대로
열두가지비출 보내드리죠
라라라라라라라라
라, 라, 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 라, 라,

이러케 노래부르면서 별아가씨들이 봉희의베개를 바라볼때 봉희는 자기도모르는동안에 마음과 몸이 먼─나라로 동동 떠가는듯하엿습니다.

춤을추고 마다 아름다운 보석은 테를두른 별아가씨의 입술은 새빨간 장미꽃가티보이여서 만지면 터질것가티 보엿습니다.

봉희는 자기입술로도 피가 그와가티 소리로 마처서 가슴한가운데서 큰수레 자근수레 이르키는 것이아니냐 드러가서 착구 이러나게 가만히 몸을 이르켯습니다. 거긔보는동안에 자리에누어잇는 조금도 어지럽지안코 또 가볍게 되엿습니다.

봉희는 별아가씨들춤을 또바라보고잇스려니깐 이번에는 자기다리가 제절로 움직여지드니 이상스럽게도 별아가씨들과 손잇섯습니다. 나서 나중에는 별아가씨와 서로 손을 맞우잡고 춤을추게되엿습니다 봉희는 기뻐서 몸이 곱게빗나고 어느때까지 춤을 그칠줄을 모르는 봉희는 정신차려보니깐 지금까지잇든 별아가씨들은 차레차레 끈해지므로 자리에 두러누으려니깐 그별아가씨들도 차레차레 거미줄의별속으로 드러가버렷습니다. 별아가씨가 사라지자 거미줄이 아름다운꼿다발과 거미집과 화병뿐으로 되엿습니다.

그러자 조금잇다가 약병을 든 어머니가 방으로드러오시엿습니다. 그리고 엽지를 살작직은듯한 봉희의 즐거운비츨띄운 얼굴을 보시고는

『봉희야! 너무슨조흔일이잇느냐』

『어머니 나 지금 별아가씨들과 춤을추엇서요』

『뭐, 너꿈을꾸엇나보구나』

『어머니 꿈이아냐, 생시야. 자 이러케』 하고 봉희는 벌떡이러나서 춤을추어습니다. 이것을보신 어머니는

『꿈이거나 생시거나 네병이낫스니 기쁘다.』

『어머니 그별아가씨들이 이러케 노래를 불럿다우』 하고 그 노래를 별아가씨처럼 불렷습니다. 열심히듯고게시든 어머니께서는

『그것봐라 그노래말에 아가씨는 한압에한번식 착한일을 하신것을 우리는 하늘에서 다보앗습니다 허지안햇니. 네병이 크리스마스 전날밤에 낫게된것은 네가착한일을 한 까닭이다.』 하시고 봉희를 가슴에 꽉끼여안으시엿습니다.

『봉희야 래일 크리스마스축하회에 너는 별아가씨노래를 부르고 네병이 낫게된까닭을 이야기해라』

『어머니 참 그럴까 머 준비한것도 업는데 잘되겟수』

그이튼날 박게는 눈이퍼부어오시는데 봉희집에서는 일가 어른과 아버지어머니 친구와 동무들이 모혀서 크리스마스축하회를 배푸럿습니다.

여흥에드러가 각기 한가지식 재조를보일때 봉희는 별아가씨를 만난이야기를 다하고나서 별아가씨에게 배운 춤과 노래를해서 여러사람을 기쁘게하야 주엇습니다. 그리고 여러사람에게서 만흔 선물을 바더습니다.

이리하야 금년에도 봉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맛게되엿습니다.

─(이동화를 家庭部에서 재공함)─

고기도 (Cogito)

批評의基準

柏木兒

批評에잇서서의 基準問題는 過去에잇서서도 여러가지로 問題되여온것이지마는 지금에잇서서도 아모런 具體的인 解決을 짓지못한채로 남어잇는것이다。그런데 批評의 基準이라면 의례히 獨斷批評으로 알지마는 실상 깊히 따지고보면 獨斷批評만이 批評의 基準을 問題삼는것이아니라 印象批評에잇서서도이問題는依然히나머잇는것이다。「라고하는것은批評이단순한作品의解說이나紹介이아니고어떠한 意味에서든지 價値의決定이라면 印象批評일지라도 그作品의 價値에對해서 容喙하지아니할수업는것은 이러한 容喙는 또한 엇더한 意味에서든지 基準이업시는 말할수업는것이다。가령 印象批評이라면 하다못해 그作品에 對한 印象만이라도 그批評의 基準이 안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 批評의基準이란 決定獨斷批評의 專用物이고 印象批評과는全然無關한것이 아니라實狀은어느것이나다가티批評의基準을가지기는하면서도 다만兩者의 差異는 批評의 基準을批評家의內部에두느냐外部에두느냐?다시말하면 批評을心理的立場에서 할것이냐社會學的立場에서 할것이냐하는것뿐이다。그래서 事實上 이러한兩者의差異를 가지고서 하나는基準批評으로 엮어왓고 또하나는 非基準批評으로 엮어왓다 그러나 이러한意味에잇서서 批評의 基準을批評의內部에 두느냐 外部에 두느냐하는것은 실상은둘다 批評의 基準은 아니고도리혀그런것은 批評의方法에지나지못하는것이다 왜그러냐하면 基準이라는것은어떠한意味에서든지 絶對的인것이아니여서는안되는것이다。그러나批評에잇서서의心理學的方法이라거나 社會學的方法「內部的이라거나 外部的」이라는것은 어데까지나 相對的인것이지 何等의 絶對的인것은 되지못하는것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批評에잇서서 基準을 確立하자면 이러한 相對的인것보담 絶對的인 어떠한 絶對的인것을 가지지아니하면안될것이다。이러한 意味에서본다면過去 新興文學批評이란 비록 그方法에잇서서는 粗率하고 不完全한點이잇엇다고하드래도 그反面에잇서서 批評基準은 確然히 絶對的인것을 把持하고잇섯스므로 그批評은 제自身이 何等의不安이나 動搖를가지지아니하엿다。그러나 近者의 우리批評을 본다면 그方法에잇서서는이전에比해서 精緻하고 整然한體系까지 갓추고잇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一抹의 不安한氣色과 動搖의 態度가 보히는것은 역시批評의 基準을喪失한때문이안일까。

나의論爭時代 (2)

論難밧든 몃點의 追憶 —誤解나 歪曲은 서로 避하자

金煥泰

『나의 論爭時代』라는 題目을 바덧스나 나는나의쓴글에 對해서 數次論難을 바든일은 잇슬뿐 아직 한번도 누구와 直接으로 論爭한일은업다。그러니 論難바든것中에서 紙面이 許諾하는대로 한두가지만 적어 文責을 免하는수밧게 업겟다。

昭和十年에 『詩苑』八月號에 『詩와 思想』이라는 글을 시러다가 只今 그 氏名은 一一히 記憶할수업스나 李秉岐氏外 七、八人에게서 論難을 바든일이잇다。

그 글의 論旨는 大略 이러한것이엇다。思想은 理性의 所産이요 詩는 想像力의 所産이다。그리하야 思想은 어떠한 斷案을나리고 또는그斷案을 目的으로서 우리에게 意識시켜 그의 實行을 要求하는 것이나 詩는 外的目的을 意識케하거나 그實行을 要求하는것이 아니라 우리를 感動시키고 깃브게하야 그 感動과 깃븜에서 깨일때 現實을보는 새로운눈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그럼으로 한篇詩에 담긴 思想의 知的內容如何로 곳 그詩의價値를 決定하랴는것은 큰잘못이다 그런데 이잘못은 아페서 말한思想의 世界와詩의 世界의 本質에對한 理解의 不足에도 基因하는것이나 또하나詩의形式과內容을 區別하여노코內容을 簡單하는立場을 取하야 思想의 知的內容을 그詩의 內容으로서 誤認하고 그를 規準으로하야 詩의價値를 評價하라는데 그原因이잇다。

그러나 詩의 形式과 內容은 단지 理解의便宜를 爲하야 하지안는限 本質的으로는 區別할수가 업는것이며 普通 우리가詩의 形式과內容의對立이라고생각하는것은其實形式과內容의不可分의融合으로서의詩全體와 詩의外部에잇는 素材即 主題와의 對立이다。그런데 우리가 한詩속에서 抽出한 思想의 知的內容은 詩의外部에잇는 主題요 詩그것도 詩의內容도아니다。그럼으로素材인 思想의 知的內容과 詩의 價値와는 아모런 關聯도 업는것이다。

그러타고 우리는 素材의 藝術에잇서서의 重要性을 否認할수 업는것임으로 思想의 詩에 잇서의 重要性을 否認할수는업다 그것은 淺薄한 思想을 主題로 할때보다도 偉大한 思想을主題로할때 더偉大한 詩를 쓸수잇기때문이다。그러나 아모리 偉大한 思想이라도 그것이 偉大한 詩가 되랴면은 먼저 그것이 詩人의 想像속에 完全히溶解되여 感情化하고 性格잇는情熱이 되지안흐면 안된다。따라서 詩는 언제나 그속에 包含된思想의知的內容如何에 依하야서가 아니라 그것이 詩人의 想像力속에 얼마만큼 溶解되엿는가 그리고 그結果 그것이 우리를 얼마만한 程度로 感動시키고 깃브게하엿는가하는 그程度에 依하야 그價値가決定되지안는다면 안된다。

나의 이런 論旨에 對한 그의 論難은『너는 詩에서內容을 完全히 無視하는 形式主義者요 詩에서 思想을 剝奪하여바리랴는 藝術至上主義者다』하는點에 잇섯다。그러나 이런 論難에 對한 나의辯駁은 스스로 나의 그글속에 잇섯스니나는 沈默으로 對答하는수밧게업섯다。

다음으로 또하나 『批評文學의 樹立을 爲하야』라는 論策中에서 『文藝批評은 한作品이 얼마만한 宣傳과 啓蒙의 價値를가젓다거나 어떠한 思想과 現實과 意圖를가젓다거나를 測定하고 指摘하는것이 아니라 그作品속에 나타난思想과 現實이얼마만한程度에 잇서서作家의想像力과感情속에 溶解되엿스며그것들을어떤方向으로引導하랴는 그作家의意圖가 얼마만한 程度에 잇서서實現되엿는가 그리고그結果그 作品이 얼마만한 程度로 우리를 感動식히고 기쁘게하엿는가를 말하지 안흐면안된다』라고 하엿다가 林和氏에게『文藝評論의 分野와 傾向』이라는 論文中에서 그것은 『批評을 形式的인 側面에만 限定』하는것이라는 論難을 바든일이잇다。

그러나 나는 決코 『批評을形式的인 側面에만 限定』하랴는 사람은아니다。이는『詩와思想』속에서 말한內容과形式에對한나의 理論을보지안는다라도 林和氏가引用한그句節을 다시한번 읽어볼때 누구나 理解할수잇슬것이다。그럼에도不拘하고 林和氏의 나의 言說에對한 誤解와歪曲이너무나甚하엿기때문에 나는 氏의 그誤解하고 歪曲한點을 어느機會에 本紙上에서 指摘할이잇다。이미 限定된 紙面이다 하엿기 이만끗기로한다。

科學法則의兩面 —經濟法則의歷史的個別性—

③ 徐寅植

다시말하면 勞働의自然的過程은 具體的으로는 늘 社會的過程으로 限定되여나타나는것이다 그리고 生産勞働에잇서서의 人間對人間의特定한 生産關係는技術的生産力의 發達에依한 生産手段의特性과 그特性에서 規定된生産方法에依하야 規定되는것이다。『人類는 勞働에잇서 勞働의方法 따라서 結局은 生産手段에依하야 規定된方法으로써 人類相互의關係—生産關係를맷는것이다。」

그럼으로 本題에돌아가 社會의生産諸關係가 歷史法則에依하야 規制되여잇다면 그는 곳 勞働의 社會的過程을 規制하는法則으로서 그의基底인 勞働의自然的過程을 規制하는自然法則과 對立하여잇슬것이다。

「런데 勞働의社會的過程과自然的過程은 矛盾物의 統一로서 兩者는 한낫社會的生産過程에잇서에 形態와 內容의關係를일우고잇다。따라서 形態로서의社會的勞働은 內容으로서의自然的勞働이떠나서는 存在할수업는것이다。例를 資本制生産에서든다면 使用價値를生産하는 勞働過程(一般)을떠나서 價値增殖過程으로서의 資本制生産(特殊)은 存在할수업는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自然의一般法則을 떠나서는 特殊法則으로서의 歷史法則은 말할수업다。勞働의 社會的過程이 自然的過程을根據로하고서만 形成되는거와가티 歷史의特殊法則은 自然의 一般法則을 根據로서만 成立할수잇는것이다。勞働의 社會的過程이 自然的過程과 一方 異質的으로 對立하면서도 他方 同質的으로 統一되여잇는거와가티 歷史法則과自然法則은 一面 異質性을 가지면서도 他方 同一性을가지지 안흘수업다。

예서 우리는 두낫의法則이그 作用方向에 잇서서는 對立되는 兩面을志向하나 그出發에 잇서서는 同一한根底로 도라옴을알수잇다。다시말하면 두낫의法則은 生産勞働을 媒介로하고 一種의共根關係(Konjugiert-heit)를形成하고 잇는것이다。勞働過程은 社會와自然의 交鎖點이다。이포인트에서 自然法則과 歷史法則은 同一로돌아오는것이다。그러나 勞働過程은 또한自然과 歷史의分化의 起點이다。그럼으로 이포인트에서 두낫의法則은對立으로나가지안흘수업다。그리고 이두낫의法則은 이와가티 그根底에잇서서 同一性을 가짐기때문에 또한 徹底한對立=拮抗의 關係에 설수잇는것이다。어떠한 『事物』『關係』를勿論하고 그 根底에잇서서 同一=一般을가지지안코異質=特殊는『矛盾』의 關係에 설수업는것이다。

그러면 이와가티 辯證法的共根關係를 이루고잇는 두낫法則에잇서 누가根原이며 누가派生인가?그것은 무를것업시 自然法則이根原이며 歷史法則은 그로부터 派生한것이다。왜?社會는 自然으로부터 分化한것이며 또는 끗까지 自然의一部로서發展하는것이기때문이다。人類社會의 發生史는 이것을말하는 實近한例이다。人類와猿類를 區別하는 基本的標識은 人間的勞働이다。『勞働은 人間을맨드러내엿다』人間을 動物로부터 區別하는 最初의歷史的行動은『生産資料를 스사로生産하기 비롯한데잇다」이와가티 人類가 猿類로부터 進化하야 人類史의첫페이지를 열게된것은 勞働의媒介이다。自然人間은 勞働要具라는 武器를 把持함에서 社會的人間으로 轉化하엿는것이다。바꾸어말하면 宇宙的自然이 歷史的自然史的過程의 一定한 階段에일으러 自然과社會로 分化한것은 人間的勞働—生産手段의 使用에依한 合目的的勞働의 成果이다。우리는 이곳에서 社會로 律하는 歷史法則이 自然法則으로부터 分化=轉化한것임을 알수잇다。

그러나 人間은 自然에서 社會로 轉化하엿다 하여서 그날 人間史에 들어서는날부터 自然과永遠히 斷絶한것은 아니다。社會는 依然히 自然의 一部이며 그의 一部로서 歷史的으로 發展하여 오것이다。人間=社會는 人間=社會인同時에 依然히 動物=自然이다。그리고 社會的存在로서의 人間과 自然的存在로서의 人間과를 統一시키는것은 依然히 勞働이다。우에서도 본바와가티 統一이란 一面에잇서서는 對立을 意味하며 他面에잇서서는 同一을 意味하는것이다。다시말하면 社會로 自然과 斷絶식히는것도 勞働이러니와 그와連續식히는것도 勞働이다 自然法則과 歷史法則이 一面 相異하면서도 他面 同一한것은 正히 이때문이다。그럼이 두낫의 異質的秩序=社會와自然에對應하는點에잇서서는 서로斷絶=相異한것이나 社會와自然의 接觸面인 勞働過程에서 서로 連續되여잇는點에서는 同一한것이다。

그리고 이와가튼 두낫法則間의 關係가 우에서말한 勞働의 自然的過程과社會的過程과의間의相互關係로 具現하엿는것이다。그리고 勞働의 이두낫의側面을實體的으로 統一하는것이 勞働의 生産手段(勞働手段及勞働對象)體系—技術體制이다。그럼으로 物質生産의 技術體制를 中間契機(共同領域)로하고 自然法則과歷史法則이 辯證法的統一關係를일우고잇는것을 알수잇다。이意味에잇서 우리는 自然의合法則性을떠나서 歷史의 合法則性을말할수업는것이다。

三皇부터周代까지 東洋文化의考究 (五)

白耳義東洋學研究室 金載元

淸朝에와서는『西淸古鑑』이라는 圖錄이낫스니 이中의 銅器는淸朝皇室의蒐集品으로 그中의 어떤것은 最近까지 北京故宮博物院에 잇섯는데 倫敦展覽會後에 그外의 美術品과(一時는 外國에貸却한다는所聞까지 잇섯슴)가티 지금 南京어느都市에 잇다고한다。우리가 아는銅器는 數百으로 算하는데 現在 倫敦、伯林、巴里等諸都、보스톤其他各地個人 或은 公設博物館의 所有로 되엿다。이어느蒐集보다도 더有名한것은 아마日本의住友男의 銅器로서 그數數百、泉屋淸賞이라는 圖錄까지 出版되어잇다。저有名한九鼎이 아직地下에잇는지 그러치안흐면 아마 벌써 누구의 所有가되여 잇슬것이다 이銅器에는 그外形과 用途에 따라서 여러가지 名稱이 잇스니 即、鼎、鬲、甗、簋、尊、觥、觚、爵、盤、卣、彝、斝、觶、角、爵、盉等外數種이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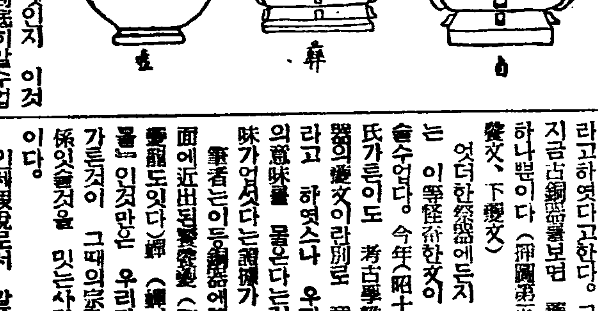
이古代銅器에는 혹히銘文이새여잇는데 古來로 支那學者들은 大槪이銘文解釋을 主로 研究對象으로 하엿다。그래서 宋代의 前記圖錄에도 그銘文과 아울러 解讀이 記載되여잇다。在來歷史記錄이 大端히적고 또記錄이잇드래도 그대로밋기 어려운現在에 잇서서 이銅器에 記錄된銘文이야말로 史家에게 貴重한資料를 提供하여왓다。더욱히周代의銅器(以下參照)에 일으러서는 혹히數百字에 일으는 긴銘文을 發見하게되니 이銅器의銘文이야말로 以上에紹介한甲骨文과 아울러 우리가가지고잇는 最古의 文獻이라 아니할수업다。다만이 銘文中에는 後人의追刻도 잇서 全部信用할수는 업스나 專門家들은 이것을 區別할수잇다。또 商殷時代의 銘文은 아직 文字가 發達하지못한때의 것임으로 現在 우리의 解讀하는바만으로 至極히 簡單하며 그字形에 잇서서 同時代의遺物인 甲骨文과 類似한바잇다。

이所謂 現在까지의 中國의金石學이라 하는것은 銘文解釋을 爲主하야 器名을알어내고 古書와對照比較하야 그用途를알고저하는데 지내지못하엿다。現在支那의金石學에 屈指한 人物로는 容庚 郭沫若 羅振玉氏等이다。

古銅器의銘文外우리의注目을 끄는것은 그銅器自體의形態와文樣이다。元來 이古銅器는 그史料的重要性에 鑑하야 近代學者들의 研究가 盛行하야 上記支那諸學者外에도 日本의諸學者(그中에도梅原末治氏가 近來그業績)와 歐米人士(瑞典의 『칼그렌』(Karlgren)과同國 『시렌』(Siren)、英國의 『에쓰』(Yetts)、佛國『펠리오』(pelliot)氏等이 著名한研究가 만흔데 이銅器만으로도 벌써東洋學上의一大部門이 形成되엿슴으로 到底히一篇論文으로그지금까지의 研究結果全部를 紹介할수업다。

이제古銅器의文樣을 살펴보면 그中그文樣의 第一位를차지하는것은所謂饕餮文이고 第二位를차지하는것이夔文 그다음雷文 蟬文等이다。以上에 筆者는商代宗敎狀態는古銅器(勿論이境遇는主로 商殷代의銅器에限함)研究로알수잇스리라고 한것은 即 이銅器를 裝飾하는 여러가지 文樣으로 알수잇슬것갓다는意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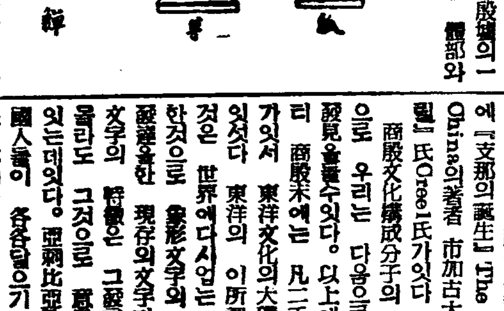
그러면大體第一만히볼수잇는 饕餮라는것이 무엇인가。이에는아직까지定說이업다。荒唐하기로有名한 山海經에揭載이라는人面獸身의 怪物에對한 記錄이잇는데 許者이것이卽饕餮이라고하엿다。(그外饕餮는貪獸라는等 여러가지 傳來의說이만흐나 하나미들것이 업다。)夔라는것이무엇인지 이것도在來의記錄으로는到底히알수업다。俗에夔는古代의大臣으로 그 다리가하나(一足)이라고한다 孔子時代或者夫子에게『夔一足』이라니 事實입니까라고 물은일이 잇는데 夫子對答하야『夔一足이라는것은 다리하나라는말이 아니라『夔一이면 足하다』라는뜻이라고하엿다고한다。그러나우리가 지금古銅器를보면 夔은果然다리하나뿐이다 (挿圖第五參照、上夔文、下夔文)



壺 彝 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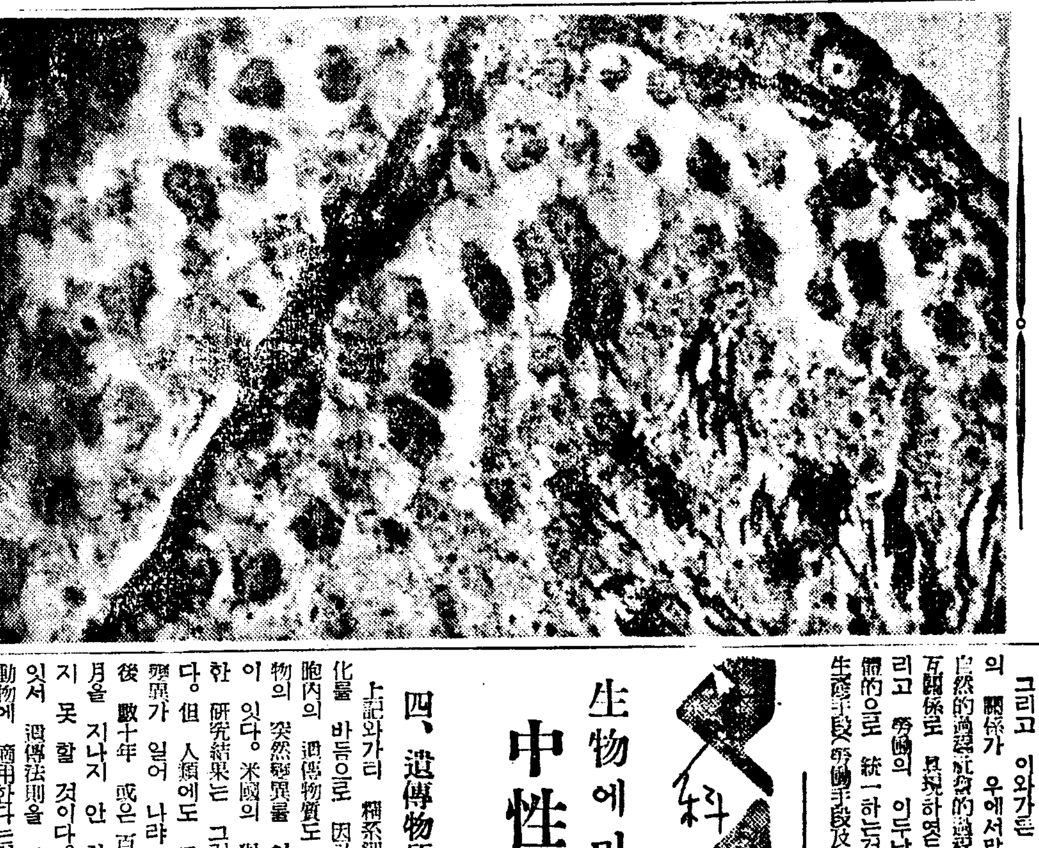
엇더한銅器에든지 恒常볼수잇는 이怪獸에는 아무意味업슬수업다。今年(昭十二)伊東忠太氏가든이도 考古學雜誌에 古祭器의變文이라別로 意味업는것이라고 하엿스나 우리가지금그文의意味를 몰은다는것은 決코意味가업섯다는證據가 아니된다。筆者는이古銅器에裝飾으로 表面에近由된變態夔(變形으로饕餮鳳雙龍도잇다)와 (鐃이珠生의『신몰』)인것만은 우리가안다)雷文가튼것이 그때의宗敎思想과 關係잇슬것을 밋는사람中의 하나이다。

인제假說로서 말하면商殷代에 一中央神이잇섯는대 그宗敎의根底는 二元으로 벌서陰陽思想이 잇서 萬物의出沒生死가 그것으로解釋되엿다。이宗敎問題란 그性質上 極히複雜하야 到底히簡單히 解決할問題도아니고 여에 紹介할수도업다。다만 商殷代에 以上과가튼 支那特有한 銅器를 使用한宗敎가잇서 이祭器에 從事하는 一特別階級이 잇섯스니 우리는이것을 士階級이라고하자 이商의祭禮에는 人身犧牲이잇는 痕跡이 濃厚하야 近年殷墟의一 商帝墓에서 頭部가달은 體部와 따로노여잇는人骨을 發見하엿다 이宗敎上祭禮式의 人身犧牲이라는것은 商殷文化가高級文化는 아니나 全東南亞細亞一帶에 分布되여잇는現象이고 또黑西哥의 古『마야』文化가튼高級文化에도 人身犧牲한痕跡을 確實히 우리가알므로 商殷의이宗敎가 별로 神奇한現象은아니다。그러나 이것도아직假說에 지내지 못하는데 이假說을主張한사람으로 近年에『支那의誕生』『The Birth of China』의著者 市加古大學의『그릴』氏(Creel)氏가잇다



觶 尊 觚

商殷文化構成分子의 主要한것으로 우리는 다음으로 文字의 發見을들수잇다。以上에말한바가티 商殷末에는 凡二千字의文字가잇서 東洋文化의大礎石이노여잇섯다 東洋의 이所謂漢字라는것은 世界에다시업는 唯一無二한것으로 象形文字의 最後의 發達을한 現存의文字다。이象形文字의 特徵은 그發音의如何를 물론하고 그것으로 意思를通할수 잇는데잇다。亞細亞數字를 各國人들이 各各달으기 發音하여도 不拘하고 그數字로 意思를 通할수잇는것과 同一하다。



(寫眞은 馬身人首圖)

歷代史談 東胡의漢人統治 ②

崔淦海

前漢時에 匈奴의 大酋長 老上單于는 그民族固有의 風俗을 變하야 漢人을 摸倣하라 하얏더니 본래 漢人으로서 匈奴에 投降한 中行說이란者는 外俗摸倣의 弊害를 力說하야 그것을 中止시켯다한다 그래서 匈奴의 俗의 長處를 일허버리지 안엇다한다

五胡、南北朝時代에 後魏孝文帝는 北狄固有의 風俗이 너머 粗野함을 실혀하야 本姓拓跋을 버리고 漢姓元을取하야 元이라하앗다 그리고 胡言과 胡服을禁하며 漢人의 風俗、文物을 힘써 摸倣케하얏다 그中 胡漢結婚의獎勵는 더욱有名하얏다 그結果는 奢侈、柔弱의弊를 나케하야 國勢가 衰微하얏다 한다

金의 世宗은 後魏孝文帝의過失을 前車之鑑으로 하야 金人의 漢語學習、漢姓改稱、漢人衣冠의摸倣을 一切禁止하얏다 그 反面에 漢人은 所謂 北胡의姓 即 女眞의姓을 冒稱하야 一層의榮光으로 여겻다한다 그럼마나 우선은 對照이나 金朝의末에 財力의 窘乏으로 罰錢贖罪것으로써 財力을 補充하랴하니 따라케 職姓制까지 發賣하야 그라 人心을 繫縛하려하얏다 女眞族의 大姓 더구나 宗室이란 女眞王族의 姓까지 바든者가 잇섯다한다

元朝에서는 漢人을 危險視하야 元初의 宰相伯顔은 漢族의 大姓인 張、王、劉、李、趙 五姓을 모두 주겨버리자는 提議까지 하얏다 아모리 狂暴한 짓이엿지만 그 얼마나 무서운 假想이나 當時 漢人、南人은 兵器를 갓지못하게하얏는 그들을 危險視하얏다 그러하나라 元朝는 一切胡俗 即北方蒙古의 風俗으로써 漢族中國의것을 變易하려하얏다 士民은 全部 辮髮、椎髻、胡服、胡帽를 하게하고 辮髮 衣服은 窄袖、短衣、下服窄褲이엿다 이것이 最近에까지 普及되얏스며 더구나 婦女의 衣制는 最近까지 그形跡을 볼수잇섯다

元에서는 胡姓의例는 아니라 蒙古風의姓名을 他族에게 주엇슴으로 無恥한 漢人은 蒙名을一種 榮譽로 여기게까지하얏다。

淸太宗은 金世宗의 金俗固守의 方針을 繼承하기 마지안엇다 太宗의玄孫 高宗乾隆帝는 太宗의遺訓을 利用하야 滿洲固俗의 保存을 强調하고 특히 『國語(即滿洲語)와 騎射』의 두가지를 尊重하얏다 그러나 漢人接觸의 오램을 따라 漸次 漢語에 嘗染되야 大旨은 騎馬를 等閑히하고 騎射 라며 滿語를 등한히하고 漢文을배웟다 그러나 漢文은 到底히 漢人의 程度가 아니여서 도리어 漢人의 嘲笑를 바덧다 그러나 滿族의 同化가 되지말것。滿族을 同化取締하기하야 이두가지는 淸朝의 漢族統治에 對한 二大主義이엇다 그래서 첫째로 漢淸通婚의 禁法을 嚴行하엿다 만일 通婚이 生하면 許하엿드면 數百萬의 滿族이 數億萬의漢族에게 不出百年에 自的으로 同化吸收되야버렷슬것이다 滿族의習慣中에 아들이 나면 뭉로활과 를 놓러서 滿洲의 形을 만든것、堂子의禮를 行하는것、滿洲文字는 蒙古文字에도 不及한 그猶劣性 이러한것은 모다 他族에對하야 조금이라도 자랑할수업는것이지만 그들은 自俗保守에 絶對的努力을 아끼지안엇다。

以上과가티 漢土의 歷代侵入者는 或은 漢俗同化를 主張하고 或은 胡俗保守에 汲汲하얏야 그 政策과 態度가 자못一律的이 아니엇다 그러나 後魏의同化는 반드시 失敗이며 金元、淸朝의保守는 반드시 無上한 策略이 아니엇다 이것은그 當時의 社會的環境과 彼此의 文化的程度에 依하야서만評定할 價値의 問題이다

伴伯의希臘人은 羅馬를征服해다『Captive Greeks Captured Rome』는것은 西洋古諺이다 武力으로서 敗한 希臘人은 文으로서 羅馬人을 이겻다는것이 그古諺의 意味이다 漢土의歷代諸蠻族이漢族에의 同化를 如何히拒否하앗지만 결국은 漢文化의 優秀한 바다에서沈沒되고 마럿든것이다 그러나 보다도 深甚한 史眼으로서 이것을 한번 考究해본다면 漢族의 文化的優秀性이란것 보다도 그들이 그當時에갓고 안젓든 經濟的 組織體系가 그 優秀한 文化的機構의 基礎를 實的、量的으로 繁固히 保障하고 잇섯든것이다 그래서外來族의 武力的强壓이 如何히一時的 반랍리合의 무서운 外觀을 나타내엇스나 그들의 外來的、原始的 幼稚한 生活組織은 漢土固有의것에 결국 同化되지안을수 업섯든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漢土에 뿐아니라 中古歐羅巴에 잇서서 異民族間의 交接에의 大小的 侵入에서도 볼수 잇섯든것이다 그들이 결국은 羅馬의 同化가 되고만것은 그當時 彼此의 生活體制의 物質的條件 그 歷史的優劣性에 依하야 그것을決定케된것이다

世界珍聞

단눈치오失望

지난番 伊太利 王立 翰林院會가 國王 女王 兩陛下臨席下에 盛大히 열리엇든 그때에도 제일 重要한 人物로서 단눈치오總裁가 缺席을하엿기때문으로 種種의 風聞이 돌앗다 다니엿섯다。단눈치오는 故말코니氏의 뒤를니어 翰林院總裁에推薦은 되엿스나그는 人間의 소문으로드러서 그 羅馬入을 뭇소리니氏가公式으로 歡迎을 안하기때문에 失望한수가업시 目下 隱棲中의 가르다湖畔에서 鬱鬱不樂한 歲月을보내고 잇는 모양이라고 하다。

小文庫

趨庭錄(十九) 苦椒와胡瓜

蓑山生

苦椒는 本來 南아메리카의原産이라고 하는터인즉 컬어도클롬보스에 依하야 新大陸이 發見된 以後에 몬저 歐洲로 건너갓다가 다시 極東으로 들어온 것이 分明하다 。지금 우리네가 世界의 어느사람보담도이 苦椒를 가장 만히 먹고 살지만은 실상 우리네가 苦椒를먹기시작한 歷史는 그다지 긴것이 못 된다。그러나 朝鮮서外國것을 바다 드리자면 大槪는 漢土나 日本內地를 거치게 되는데 苦椒는 果然그 어느편을 거치엇슬가。芝峰은『始自倭來。故謂倭芥子』라고 하얏슨즉 芝峰當時에는 苦椒를 倭芥子라고도 하든 모냥이라 그러한 말을 미루어서는 芝峰의 이야기가 近理하지 안 한가。本來苦椒는 漢字로 番椒 또는 南蠻椒라고 쓰니 그것은 南蠻 乃至 番人으로 부터 由來됨을가르킴이려니와 그以外 普通의通用語로는 漢語에서 辣椒、和語에서 唐辛(도―가라시)라고 하니 倭芥子라는말이 漢語보담和語에 가차운 것은 勿論이요苦椒라는 말도 辣椒의 辣보담 唐辛의 辛과 좀더 密接하야 보인다。이와가티 그 名稱으로만 따지어 볼진댄 苦椒는 確實히 漢土로부터 들어 온 것이 아니요 日本內地로부터 들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그런데 童謠中에『고초당초 맵다한들 시집살이 가틀소냐』하는 말이 잇지 안 한가。여기서 당초라는 것은 곳 唐椒로서 녯날고초의 一名이나 아니엇든가。松南雜識에는『爾雅翼曰三香椒爲蔎也。今俗謂苦椒者謂苦椒爲椒。卽此也』라고 하얏다。고초당초의 당초는 唐椒가 아니요 곳 椒椒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케 그名稱으로써 由來된 곳을 따지는것은 甚히 危險한일이니 호박은 그 조흔 例의하나다。勿論 호박은 곳胡瓜의 뜻으로 그胡字를 미루어 北편에서 드러 왓다고 推斷하겟지만은 松南雜識에는『或云自倭來。故謂倭瓜』라고하야 엣날에는 왜박이라고도 말하든것을 證明하야 주고잇다。何如든 호박도 고초나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드러온것이요 또 그드러온年代가 比較的짧다는것만은 잘 알수잇다。호박을 倭瓜라고도 말한다고 적은데 繼續해서 松南雜識에는『食之可療飢。至今不祭用。而英廟始爲祼。於是乎貴人食之。我國人智蔘多爲胡朴所累云 。盖胡朴出前人材之盛時也。胡朴出後人材之衰時也。』라고 記錄하야 노핫다。호박이 朝鮮人의 술기스구녁을 막앗다는 녯俗談과 아울러 거기 對한 그의 解釋은 다 한께 재미잇는 이야기다。그의 解釋中 人材盛時란 大槪 宣朝以前 人材衰時란 그以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고 推測된다。

科學 生物에미치는◇ 中性子의作用 (下)

一記者

四、遺傳物質

上記와가티 精系細胞가 큰變化를 바듬으로 因하야 그細胞內의 遺傳物質도 障害되야動物의 突然變異를 이르키는 일이 잇다。米國의 猩猩蠅에 對한 研究結果는 그것을 證明한다 但 人類에도 그러한 突然變異가 일어 나랴 안 나랴 今後 數十年 或은 百年以上의歲月을 지나지 안 하면 實證되지 못 할 것이다。下等動物에 잇서 遺傳法則을 그대로 高等動物에 適用한다는것은 注意를 要할바다。

五、癌

癌은 아마 이 새로운 放射線의 應用對象으로서 重大한것의 하나리라。米國에 잇서서 쥐의 移植癌을 移植하기 앞서서 中性子를 가지고 强하게 照射하고 그뒤 移植하엿더니 만흔 移植片은 成長치 안키에 이르럿다。여기서 中性子는 癌腫에 對하야 破壞力을 가젓다는것이 確實케 되엿다。그런데 이 實驗은 動物의 身體를 떠난 癌의 組織片을 照射한 것으로서 動物體內의 癌、特히 癌의 患者를 治療할 境遇와는 大端히 다르다。他方 또 中性子가 如何히 强烈한 破壞作用을 癌組織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患者의 治療에 當해서 癌만을 中性子로 照射하고 周圍의 健康組織을 조금도 照射치 안키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中性子가 癌組織과 同樣으로 健康組織까지를 破壞한다면 中性子를 癌治療에 應用케는 될수업다。

從來 癌의 治療法으로서는만흔 境遇에 잇서 初期에 發見되야 다행히 手術이 可能하면 手術을 施行하는 것이 最良의 手段으로서 手術 不可能의 境遇에 手術 以外의 方法을 가지고 癌組織을 肉迫하는데는 렌트겐線과 r線이 잇을뿐이다。이제 새로운 中性子에 癌破壞力이 잇는 것을 알앗슴에 따라서 렌트겐線이나 r線과 比較하야 中性子가 癌患者 治療法으로서 얼마쯤의 價値가 잇것든나는 實際問題로서 極히 興味기픈 研究題目이 되어잇는것이다。

그러데 中性子라는 새로운 微粒子線의 强力이나 量이나 物理學的으로 測定키는 좀처럼어려운 것이다。設使 正確히 測定되야서 렌트겐線보다 物理學的으로 弱하고 잘못는다손치더라도 醫學上으로 그것이 最後의 斷案은 아니다。렌트겐線이나 r線으로도 癌을 治療하자고 하더라도 照射場所며 全身에 種種의 副障害가 일어나고 잇다 그러나 癌組織의 편이 健康組織보담 훨씬 더 빨리 破壞되기때문으로 治療에 使用되는것이다。中性子도 果然 렌트겐線이나 r線과 가티 健康組織보담 癌組織을 더 容易하게 破壞시키는지 못 시키는지 自由로 무러끄내 노흔 癌이 아니요 動物體內에잇는 癌組織에 對하야 比較研究하지 안해서는 안된다。

中性子가 萬一에 렌트겐線이나 r線과 同樣으로 健康組織보담 癌組織을 더빨리 破壞할수잇다는것이 多種의 癌動物에 對하야 證明된다면 이 擴揚的 癌破壞力이 렌트겐線이나 r線과 比較해서 定量的으로 如何한 關係를 가젓는지 다시 定하지 안 하면 안된다。렌트겐線이나 r線보다도 癌만을 破壞하고 健康組織을 犯치 안는다고 하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慶賀할 일로서 우리네 人類의 强敵인 癌에 對하야 우리는새로운 武器를 發見한것이 될는지도 모르는일이다。

以上은 中性子를 直接 生物에 作用시키는 것이나 이中性子와 重水素이온의 加速된 微粒子線에 依해서 種種의 元素를 人工的으로 放射性으로 할수가 잇다。이것이 所謂 人工라디움이라고 俗稱하는 것이다。天然의 放射性元素는 그種類가 制限되야 잇는 同時에壽命이라든지 化學的性質이라든지 마음대로 適當한 것을、어디넘수가 업는것이다。거의 全部가 어떠한 器械에 담아가지고 使用되는 까닭에 化學的性質에는 應用되지 못한다。

그러데 이제 各種의 元素를 放射性으로 할수가 잇스니 물건에 따하서는 特種의 複雜한 化合物의 一分子中에 부치허 너흘수도 잇슬지 모른다。그化學的性質과 放射性을 併用하는 우에 從前과는 다른 應用方面이 열리어서 內服이라든지 注射라든지로 應用되야 意外의 效果를 나타낼는지도 모른다。

人工라디움은 天然라디움의代用으로서 天然라디움과 同樣으로 使用될뿐이 아니라 이외 全然 새로운 分野에로 期待를 가지게되는것이다。(사진은 中性子에依한 精系細胞의障害)

「哲學」概念의變遷 —哲學의普遍的定義의難點—

⑦ 金午星

時空을 超越한 普遍的 定義가 不可能하다면 그反面에 各時代의 모든 哲學體系는 그時代의 時性을가지고 잇다는것 그럼으로써 普遍的 定義의 代身에 時代的 制約미테서 어더지는 定義를 가질수 잇지안흘까? 哲學의定義를 橫的으로 超歷史的으로 求하지말고縱的으로 歷史的 發展의 視角미테서求한다면 거기서、各時代의 哲學이 그時代의 一般的 時性을 가지고 定義된것이 아니가이러한 歷史的인 定義가 哲學의 定義가 아닌가。

우리가 視角을 바꾸어서 살펴보면 哲學이란 槪念에 對한 類槪念은 各時代에잇서 그 文化機構의 時性에 따라 相異하엿슴을 볼수잇슬것이다。希臘時代에잇서 哲學은 그우에 類槪念도 그自身 種差槪念도 區分되지안흔 渾然한 學問의 精神이엿다。中世紀의哲學은 그上位에 宗敎를가지고잇섯다。哲學은 宗敎의婢僕으로서 滿足햇다。그러나 近代에일으러서는 哲學의上位槪念은 學問(Wissenschaft)이며 그러면서도 모든 特殊學問과는 種的槪念을 달니하고잇는것이다。그러므로 哲學은 오직 歷史的으로 相異한 定義를 가질수밧게 업는것이다。그것은 哲學이 모든體系가 그時代와不可離의 制約關係에서、成立되는대서오는 事實인것이다。

時空을 超越한 즉 超歷史的인 定義는不斷히 變化하며 發展하는 具象的 事實에서는 차저낼수 업고 오직 抽象的事象에서만 發見할수 잇는것이다。가장 普遍的 定義가 可能한것은 數學이다。數學은 具象的 現實보다도 抽象的事象의 一般的關係임으로 數學의 定義만은 普遍妥當的이다。그러나 具體的現實과 갓혀 잇스며 또人間의社會的 行動과 結付되어잇는 哲學은 그時代를 具體的 現實에서 獲得하는 까닭에 哲學파가는 普遍的 定義를 가질수업고 오직 歷史的으로 相異한 定義를 가질수밧게 업는것이다。그러나哲學이 普遍的 定義를갓지못한다고 그價値가 減少에 떠러지는나하면 그러치안타。哲學은 그時代의 特性을 가짐으로서 그時代의 人間의 生活과 行爲에生命을주고 血肉이 되는것이나 數學은 抽象的 原理이여서 그러한 生命力을 갓지못하고잇는것이다。

우리가 어떤 事象을 定義하려할때는 論理上으로 어떤類槪念의 內包에 種差를 加하고다시 그種槪念의 內包속特性을반드시 論理에 依해서만 規定되는것은 아니다。種槪念과 類槪念의 그特性을 規定하며 더욱이 定義의 精神을 規定지여주는것은 그時代이며 그때의人間들의 生活態度에서 지여지는世界觀인것이다。各時代의 모든哲學體系는 그時代의 生活相이오 一般的世界觀에서 그特性을規定밧은것이다。그러므로 哲學의歷史的規定은必然的으로 그時代의 生活形態 또는그때의 一般的인 世界觀과의 關聯미테서만 具體的으로 把握되는것이다。(完)

新刊紹介

◆中央時報 第一二二號(週刊)發行所京城府林町八二 中央時報社 振替京城四五二五番 定價一部八錢

◆鐵道朝鮮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六 朝鮮鐵道時代社 振替京城八九三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琢磨 第一輯 禪學家降誕六百十七年記念號 發行所 平北寧邊郡北新峴面普賢寺 佛敎專門講院 琢磨社 定價三十錢

◆平壤勉勵會報 第三十七號(月二回) 發行所 平壤府景昌里八五 馬布記念館 平壤勉勵會報社 振替京城二六七九四番 定價一部五錢

◆復活運動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孝子町五八 復興社 振替京城一〇四八三番 定價五錢

◆朝鮮銀行統計月報 十二年十月分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一〇 朝鮮銀行 定價五十錢

◆(月刊)朝鮮商工獎勵館報 第四十九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 朝鮮商品調査研究會 定價十錢

◆가톨릭朝鮮 二月號 發行所平壤府館後里 가톨릭朝鮮社 振替京城一五五九七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五厘

◆月刊野談 二月號(內容:孫秀楓菊 괴무든비수 間一髮四代獨子 變姿珠娘 아들이든가엇스나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三八八 月刊野談社 振替京城二六三五二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高麗時報 第八十三號(月二回) 發行所 開城府北本町二三九 高麗時報社 振替京城二〇九三番 定價一部五錢

◆가톨릭少年 二月號 發行所 間島延吉街 가톨릭少年社 振替京城二五〇二六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新朝鮮 二月號 發行所 京城外崇仁面貞陵里三七八 新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十五錢

◆月刊로시야 二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の內二丁目二 日蘇通信社 振替東京六一五〇八番 定價四〇錢 送料一錢五厘

優美館 電光九五三

二月三十一日「舊正一日」부터

超特作全發聲日本版!! 肉彈王 에드와드·G·로빈손氏主演

曉闇의電光

支那の黎明

黃金座 日活

1月29日ヨリ2月4日マデ

續浮名三味線	3•00		6•30
パラマウント特作 街は春風	11•00	3•00	7•30
京日朝日ニュース	12•30	4•35	9•00
大金剛山の譜	12•50	5•55	9•20

團成社 電光九九五

正月第一週特別大興行

新키네마特作品 母よ安らかに

항가리夜曲

靑春部隊

新富座 京城新富町 電(本)五六七七番

二月三日早日三日間 名畵鑑賞週間 夜三回書間續映夜間七時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畵 大帝의密使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版 大金鑛 中篇

◇東京映畵社作品 現代名篇 南風の丘

桃花劇場 電光二三三

二月三日早日三日間 夜三回(書間續映)夜間七時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版!! 西部連續大冒險活劇 처음부터끗까지무시무시하고아슬아슬한大冒險活劇見失치마시라 大金鑛 前篇

◇松竹키네마社作品 家族會議

◇讀賣ニュース多數上映

明治座

2月4日ヨリ上映時間表(8日マデ)

	1	2	3
ニュース	10•40—11•07	2•37—3•04	6•50—7•17
沈默の愛情	11•08—11•59	3•05—3•56	7•19—8•10
漫畵	12•01—12•16	3•58—4•13	8•13—8•27
大地 THE GOOD EARTH	12•18—2•27	4•15—6•24	8•29—10•38

大地 2月9日ヨリ

커트說明 진·어-서-

라디오

三日(木曜)

◇午後六時 童謠와舞踊 一、산울림 二、名唱黃鶯 三、기다리는봄 培花女子普通學校 指揮 洪 叙 均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李 明 世
◇同七時四〇分 講演『香料道에 對하야』 李 演 鎬
◇同八時一〇分 歌謠코-스 一、꼿을잡고 金岸曙作 二、잘이아도 가는님 李孤帆作 三、聯絡船은 떠난다 朴英鎬作 張 世 貞
◇同八時三五分 (釜)朝鮮民謠 一、片時春 二、伽倻琴併唱 三、春香自嘆歌 四、農夫歌 (河、崔、崔)合唱 ―東萊券番― 河、崔、崔、辛 歌手 鼓手
◇同八時五五分 野談 〃五友要 張 志 浩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童話劇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同七四〇 (東)講演
◇同八時 (東)落語
◇同八時二〇分 (東)節分
◇同八時三五分 (城)蒙古音樂
◇同八時五五分 (大)物語

四日(金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주악』
◇午後〇時五分 (東)合唱 大日本聯合合唱團
◇ 레코-드音樂
◇同一時一五分 婦人講座四題 (三)婦人과美術 誠信女校 李 淑 鍾
◇同六時 童話『이상한괴리소리』 高 在 天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國語(七) 成 淵 黙
◇同七時四〇分 音律 靈山會相 中 잔靈山 가락도드리 三絃 下絃 念佛 打鈴 軍樂
◇同八時一〇分 漫談 〃 『구요〃?』 桂 熏 作
◇同八時四〇分 俗謠 一、 效果 金 元 浩 金 仙 草 金 元 畢

第一放送

歌 一、방아打鈴 三、江原道아리랑 四、노들江邊 五、金剛山打鈴 六、離別歌
◇同九時 時事解說 朝鮮日報社編輯局長 咸 尙 勳
◇午後〇時五分 (東)合唱
◇同六時 (東)世界偉人
◇同六時二五分 (東)支那語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東)
◇同八時 (城)落語
◇同八時一〇分 (城)만돌린
◇同八時二〇分 (東)長唄
◇同八時四〇分 (大)歌謠曲
◇同九時 (東)時事解說

五日(土曜)

◇午後〇時〇五分 (東)土曜콘서-트(第十二回)
◇同一時一五分 婦人講座四題 (四)婦人과經濟 품류-넷트·앙상블
◇同六時 童話劇『꽃피잇는동산』 東興日報 天道敎少年部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指揮 金 顯 學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算術(七) 崔 和 元
◇同七時四〇分 趣味講演『짜집이야기』 城大 金 晋 燮
◇同八時一〇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어화靑春 나、沈淸歌
◇同八時四〇分 (平)라디오小說朗讀 동〇의求職 李石薰作
◇同九時一〇分 管絃樂 一、수워·송·반스作曲 二、어엽분여름薔薇꼿 아르디作曲 三、어엽분자스민 벤덕스作曲 四、圓舞曲『잘잇거라』 궁겔作曲 五、코사크춤 차코프作曲 指揮 洪 蘭 坡

流行歌의 花峰

流行歌詞懸賞募集

現代의 文化階級에잇서서 그階級的 大衆性으로보아 流行歌는 거의 時代의寵兒인 느낌이잇스나 不幸히도 어떠까지의 流行歌는 그詞와 曲가 함께 卑俗低級한것이엿슴으로 一般識者의 憤懣을사고잇는바이엿는데 本社에서는 어떠한 歌의 出現을 促進하기위해서 어제 滿天下의好者들에게 流行歌를 一掃하고 새로운 流行歌로 募集해서 널리 宣布하려는바 그方法으로는 當選된 流行歌를 콜놈비아 蓄音器會社에 交涉해서 作曲吹込케하려하니 이뜻에 同感하는분은 만히 應募하기바란다

懸賞金
一等 一人 五十圓
二等 二人 三十圓
三等 三人 各十圓
佳作 五人 薄謝進呈
(但賞金以外吹込後版權、印稅는업슴)

應募規定 一人三篇以內
應募期限 二月二十五日까지
審査方法 本社學藝部擔任
(注意)―投稿는 本社學藝部로하되 皮封에 懸賞流行歌라朱書하되 落選原稿는 一切返還치아니함

朝鮮日報社學藝部

올림픽 伯林大會 記錄映畵遂完成

大規模의 技術的製作 不滅의 光輝잇는 作品

렌니·리-펜슈타-ㄹ女史가 總指揮가되여서 獨逸政府의 協力을 어더가지고 모든性能을具備한 六十臺의 카메라를 驅使해서 百二十萬呎의 필림을드려 作成한 伯林大會의 記錄映畵『올림피아·필림』二十卷은 마치내 完成되여 그製作過程을 紹介하면서 多數의 優秀한場面을 編輯한 豫告篇二卷이 日本에 輸入되엿는데 이것만으로도 훌륭히 獨立된價値가잇서서 從來의 스포-츠映畵觀念을 完全히 打破하엿다。

이제 그製作態度를 一瞥하건대 自動카메라는 氣球에 부러서 下界를 俯瞰한다。트랏크와 並行으로 百米의 레-스와 가튼 스피드로 카메라는 다라낫다。다이빙·풀에서는 選手와함께 카메라도 水中으로 드러가게된것인데 그러면서도 렌스는 항상 스포-츠에對해서 正當한 觀念에 支配되고잇다。

이映畵에서 우리들은 스포-츠의『美』를 發見할수가잇다。그리고 더듬나오는것은 스포-츠의 形態的美가아니라 그稱讚美를 볼수잇다는것이다 가령 百米決勝에서 스타-트에 드러선 黑人 오웬스의表情에 人間을느낄다름이지 何等의 黑人的느낌을 주지안는다。

그리고 월터·그로노스타-이의 適當한 音樂도 훌륭한效果를 나타내여 이映畵를보면스포-츠와 音樂과의時間的 關係까지 생각하게되는데 스포-츠와 文化와의 相關性도 이程度에 이르면 아모 遺憾업시 實寫되엿다고 할수잇다

傳染病問病

텔레비죤으로 모스크바서實驗

傳染病患者의 問病은 豫防上 여간 두통꺼리가아닌데 今番 모스크바傳染病研究所附屬病院에서는 新式 텔레비죤을 考案해서 控室에 안저스면서 患者의 面會가되도록하는 設備를 新設하엿다。이것은 同研究所의 뷔르민博士의 考案으로된것인데 電話機에다가 텔레비죤의 機械化를 附屬시켜 病室의 患者를 텔레비죤으로보면서 電話로 이야기할수잇게 만든것인데 猩紅熱과가티 病은나어서 다回復이되여가면서도 傳染性만은잇는 患者들에게 試驗해본結果 매우 好成績을어덧다고한다。

喜劇俳優苦行

實感내는耐寒撮影

자-이것은 무슨 寫眞일까? 얼른보면 머리를 감는것이라고 하겟지마는 결코 그런것이아니고 米國式耐寒撮影法이다。

喜劇『낫싱·세이크렛드』라고하는 映畵를 撮影하고잇는 캐롤·롬바-드가 監督인 웰드만先生이 췰신 머리컬이 젓지아니하면 實感이 나지안는다고 이치운겨울에 쇄위-를하드시 冷水를 끼엇는것이다。

그리고 中央正面에 자못 悲壯한 얼골을하고 안젓는 사람은 프레데릭·마-취인데 [illegible] 것이아니라 게다가 下半身은 물속에 잠겨잇는데 이짓을 撮影하기위해서 그들은 完全히 二日間이나 물속에 드러가잇게되엿다고한다。

그러니 제아모리 불령어리라고 하드래도 이러케물속에 오래 드러가잇스라면 實感도 實感이려니와 뼈가녹는듯할것은 事實이다。이러케 苦行을하다가도 休息時間이라고해서 겨우담요를 둘러쓰고 寒氣를 참을따름이라고하니 어데까지 米國式인 徹底味는 잇스나 이러케되고보면 喜劇俳優라는것도 그다지 쉬운일은 안인모양!

朝鮮키네마社 『靑春部隊』

市內團成社封切

市內團成社에서는 지난一日부터 朝鮮키네마社의 新春超特作인『靑春部隊』를封切해서 오는四日까지 上映하리라고하는데 이映畵는今年에 드러서 처음으로 封切된 朝鮮映畵이다。

東隅와桑楡의得失

白의淺慮를利用하야 黑은거의頹勢를挽回

前回에서 黑一七은의七이朝鮮式布石으로서 그局勢에는過誤의 着點인것을 略述하얏는데 그러나 黑이 거듭一九午의 四의過誤를犯치아니하얏스면 그와가티 큰失敗를當치아니하얏슬것이다 그리고黑一九는 巳의九로 白一八午의九를 떠밧는것이 定石이니 그리하면 白二〇은 巳의十으로자처 右邊上隅白勢와 連絡하야 그間의 堅固한 白地를構築함을 圖謀할것이오 따라서 黑은下隅中央으로 發展하야 外勢를 지을수잇고 그와同時에 下隅의白地는 스스로 黑勢에 壓迫케되여 黑의先手의 效果는 노상 保有할것이다 紙面關係로 圖解를示치못하는것은 遺憾이다

黑二三乃至白三六은 當然한 交換이오 黑三七己의五는 壬의三으로 노리부처 前面의白地를 破壞함으로써 目標를삼은것도조흐나 이미黑五와七을 丁의四와七에 布陣하야 耽耽한中央進出의 大勢를 表示한 以上 그稱輪을바릴 必要가업스니 中央進出을爲하야 妥當한布石이다 그리고 右邊一帶는 白勢로壓倒되엿스니 그와對抗하기爲해서도 左邊黑勢를中央으로 伸張치안흐면 안될것이니 黑三七 己의五는 高手의 愼重한手法이다 白三八辛의四와 黑三七癸의四는 一般定石이요 白四〇庚의 六은 亂調의 苦한著이다 그것은 左邊黑地를 엿보와오것이지마는 첫재右側我勢의 減殺을 도라보지안코損이잇고 또 둘재그一點이 斷切되여中原大棋에 黑地가 拂成될을 살피지못한일이다 그리하야白은 마츰내黑의中央進出의大勢를 完成케하고 말것이니 그와가티 큰損失을 어대서補償할것이냐 一般으로 白四〇은辛의六으로 飛走함이定石이로되 그리하면 黑三九癸의四가 다시癸의六으로 飛走하야 中央으로突進할 것이니 白四〇은 癸의五로 黑三九의中央發展을 阻止하야 右邊白勢를 破壞치안케하고 그리하야 中央白地를 흐트지안케하고만한陣營을 진게하고 그리하야 右邊의白勢를 擴大할것이면 그러면 黑은 가티 中央白地의 損失을 입을것이오 또그와가티 白勢가 增大하면 左邊黑地는 스스로衰弱케될것이니 그러한 白勢를가지고 이左邊黑地를 破壞하는것은 反手할만큼 容易할것인대 이제 白은 이러한陣法을 全然沒却하고 한갓庚의六으로 左邊黑地를 威脅하랴가는 虛勢를나타내여 黑으로하야금 곳이方面에注意를 모히게하고 前面白地만安保코자하얏다 그러나 黑은白의그러한術策을 逆利用하야前面白地를破壞함을 目的한것가티보이고 가만히中央進出의 目的을實現하얏스니 黑의深謀는 白의淺慮를 잘利用하얏다 그리하야 黑은右邊下隅에서慘敗한 頹勢를挽回하고 다시先手의效果를 百度로發揮케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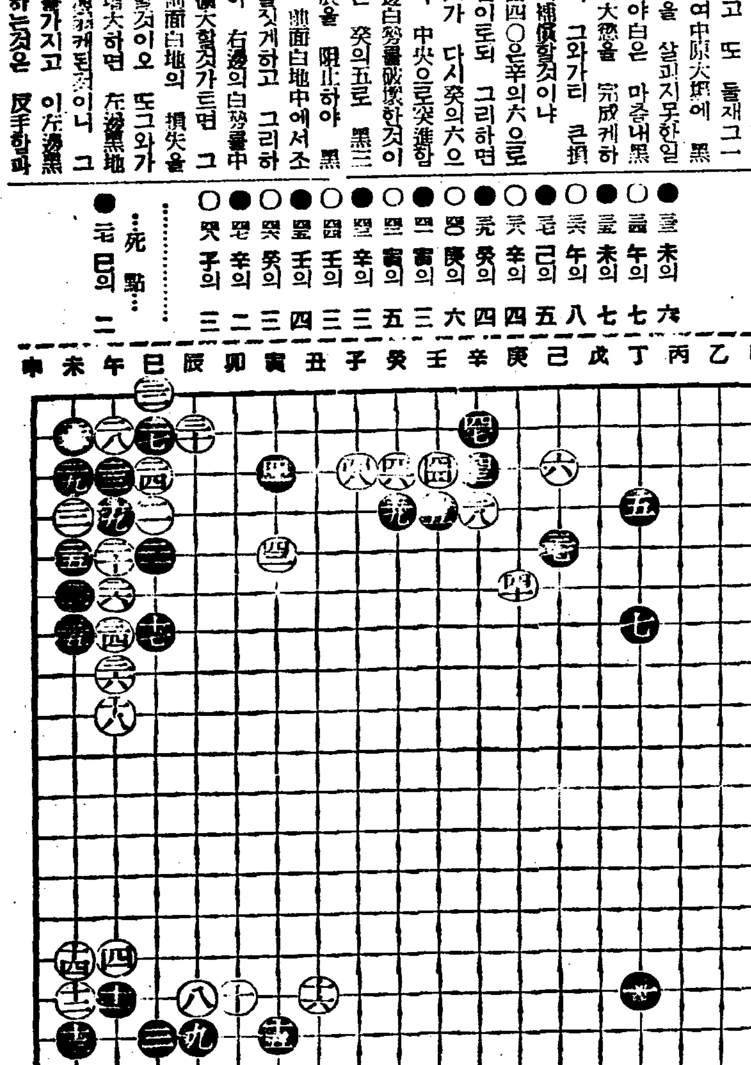
黑白間 四一乃至四八은 正常의 應酬인데 紙面關係로詳論치못함은 遺憾이다 그리고 一回十子以上은 언제나 紙面關係로 詳論할수업는데 이譜는 一回 平均 十五子以上이니 노상未盡한곳이 救할수업겻다 더구나 圖解가튼것은 하나도提示할수는업스니 未安한일이적지안타 (三玄子)

國手爭覇譜 (3)

本社獨占

白 盧史楚
黑 任佑植

● 未의 六
○ 午의 七
● 未의 七
○ 午의 八
● 己의 五
○ 辛의 四
● 癸의 四
○ 庚의 六
● 寅의 三
○ 寅의 五
● 辛의 三
○ 壬의 三
● 壬의 四
○ 癸의 三
● 辛의 二
○ 子의 三
…死點…
● 巳의 二



九死一生 (下)

【實話】 石金灘

홍서방은 나무우에서 이광경을 낫낫치 굽어보고잇섯다。그러나 자진하야 죽을욕량이도 산것만갓고 더군다나 오몸에 맥이빠지고 팔다리조차 울쪽입힌이업서 나려오지못하얏다。『어찌할고?』하야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잇슬때에 먼-데서『액-』『액-』하는 소리가 연거퍼들렷다 그것은 장마를지나 나무에물기가 만하저서 밈이잘도는때를노치지안코 피나무(椴)껍질을 벗기려단기는『감메꾼』들이 기픈 산속에서 서로 동무들을 으는 신호엿다。홍서방도전에 해마다 한두번식 동리농부들과 함께『감메』를 단겨본적이잇는까닭에 얼른그소리를 알아듯고『애-익-』하고 가치신호를하얏다『액-』『액-』『애익-』하고 수십번이나 신호를 주고바드며 감메꾼들은 점점홍서방 가까이오는것이엿다。

홍서방은 속으로『올타!이제는 정말 살아나는가부다!』하고 정신을 바짝차려가지고 끈힘업시 신호를하얏다。그리고감메꾼들이 가까이오기를 기대려『사람살려주오!』하고 고함을첫다 감메꾼들은『사람살리란』는말에 깜짝놀라

『낫소!』

하고 웨첫다。호랑이가 낫느냐는말이다。

『낫지만 다죽엇소。어서와서 나를 내려노아주소!』

홍서방은 기를쓰고 웨첫다。

감메꾼들은 다섯이 한데 몰려 점점 가까이와서 나무우에잇는 홍서방을 처다보고는 저저마다 겁이압서서 겨테엇는 나무로만 기어올라가고 아모도 더가까이오지안햇다。

홍서방이 아모리 죽을애를쓰가며 목소리를 질러 호랑이가 다-죽엇다는말을하여도 감메군들은 고지듯지를안햇다。그리고 당장 어디서 호랑이가뛰여나올까 겁내여 올나가는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것이엿다。

×

한편으로 홍서방의집식구들은 모다 끈히잠들엇든까닭에 아모도 홍서방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줄을 몰랏다。이튼날 아츰에 늦게서야 홍서방이 온데간데업서진것을 알은 식구들은 깜짝놀라 집근처를 돌아보고 홍서방의진신짝과 호랑이발자죽을보고 홍서방의진신짝이 떨어진것을보다 그가 호랑이에게 물려간것은 틀림업는 사실로 증명되엿다。

이집 저집으로도 기별이오고가고온동리는 발끈뒤집혓다。어떤 로인은

『개를 잡아먹으면서도 산신령님을 위하지안햇다니 그런화단을 당하지안흘수가 잇나?』

『그사람이 원체 고집이 너무 세엿거든』

하야 홍서방을 나무래고 또 어떤 로인은

『밀경 오좀두려나갓다가 그변을 당한모양이라지?글세 오좀은 방안에서 요강에눌것이지 무엇하려 박게나간담!그사람이 너무도 겁이업섯느니』

하야 홍서방을 탄식하는이도 잇섯다。그러나 동리젊은이들 십여명은 모두 창과 회(회불켤 준비)를마련하여가지고 떨어나서 홍서방의 시체를 치즈려가게되엿다。산속에서 자리난사람은 대개 즘생의발자욱을 보는눈이밝은지라 혹은 풀바테 호랑이발자욱이 뚜렷이낫다가 잡복바티되면 어디로갓는지 분간하기어려운것을 갈신히차즈며 차츰차츰 가는것이 나지횡선기울어서야 범의굴 가까운곳까지갓다。

그러나 그들도역시『감메꾼』들과가티 죽은호랑이도 산것만가타서 제각기 횃불을 켜들어호랑이가 달겨들지못하게 하며가지고서야 가까히 다아들어가보니 엄지호랑이와 표범은 과연 죽어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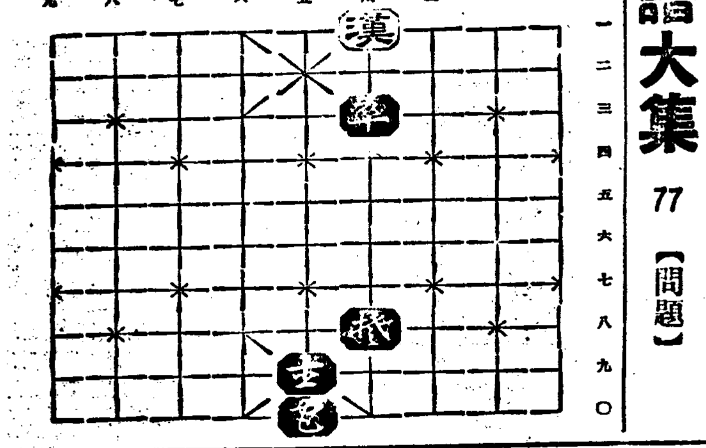
그리하야 그들의손으로 홍서방은 목숨이구조되여 집까지업혀돌아갓다 홍서방은 그뒤오래동안 치료해서 상처는다아물엇스나 동힘줄이 발라저서 아프로 몸을굽히지는 못하고 빳빳하게 제치고단기는 병신이되엿다

그러나홍서방은 그신에 아들형제를 나아길럿고 그뒤에또아들삼형제를 나아길럿스며 아들오형제에서 아들손자 열여섯이나서 지금은모다 장성하엿스니 그유첨군은 그중의 장손이다 그러므로 홍서방이 죽은뒤 그자손들은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것은 독수리라고하야 지금도 해마다 한번식 독수리께 제사를지내며 평상시에도 독수리가 자기집 닭을 훔처가는것을 보면 쏫지안코 내버려둔다。(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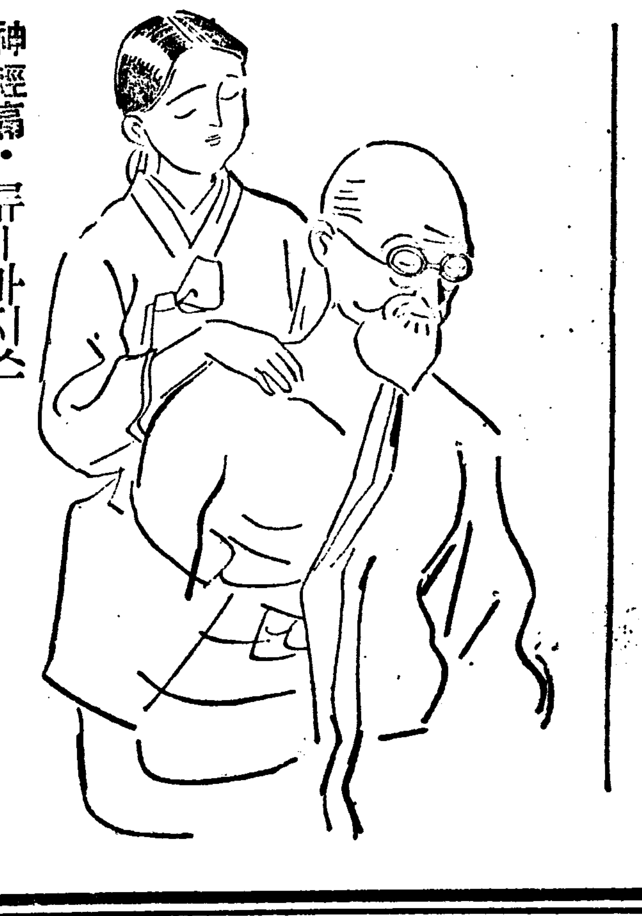
◀楚가이기는수▶

◇博譜大集 77 【問題】

楚가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슴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 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 풀어보시시오 (博譜係)



신경통 류마지스



神經痛·류-마지스

진땀이 흘으도록 몹연고통를주는 신경통·류-마지스(통풍)의 발작시에는 사로메지-루를 발느시고 살살 문질느시면 암마의物理作用과 强力한 滲透作用으로 병근원에 작용하야 향기로운 냄새와함께 이돌며 그러케 심하든고통이 곱상쾌한기분개업니다 더구나 약을발는후 거북하지않고 남보기에 실치않으므로 사용하시기에편합니다

두통치통에

요새에는 두통 현기증 변두머리 통치을 앓키쉬우니 어런때에 흔히약을먹어서 꼿치시랴고하시나 이것은 위장에 속병을납겨주거나 인이백이기쉬우니 사로메지-루는 그런법이 도모지없고 곰낫습니다

담결니는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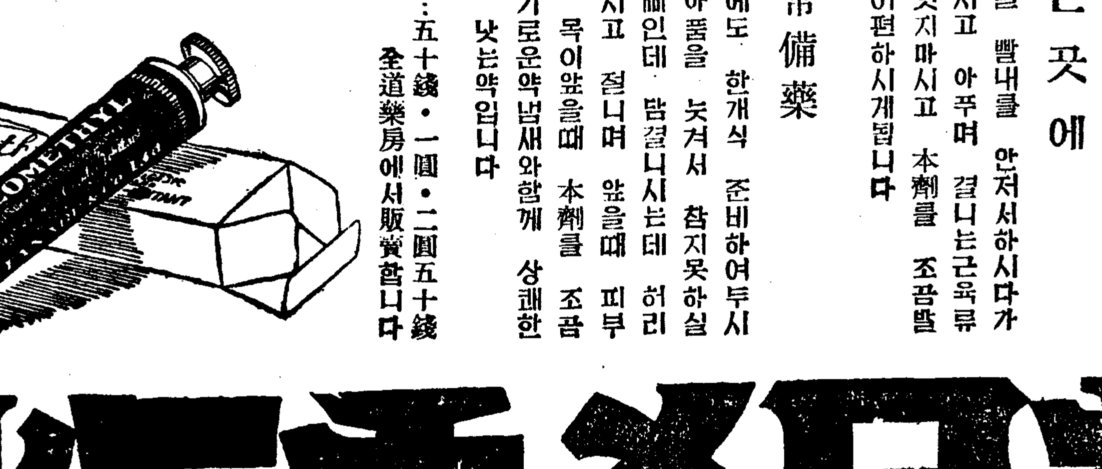
다디미질 바누질 빨내를 안저서하시다가 일어나실때 쑤시고 아푸며 결니는근육류-마지스에는 잇지마시고 本劑를 조곰발느하시면 곧나어편하시게됩니다

家庭應急常備藥

으로 어느家庭에도 한개식 준비하여두시어서 갑작히 아품을 늣겨서 참지못하실때 평지落傷 삐인데 담결니시는데 허리와 다리가 쑤시고 절니며 앞을때 피부가 가려운병에 목이앞을때 本劑를 조곰 빨느하시면 향기로운약냄새와함께 상쾌한 기분이돌며 곧 낫는약입니다

定價…五十錢·一圓·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합니다

內服藥처름인이 백이거나 또는 부작용의염려가 없시 직접환부에작용하게되므로 속치됩니다



사로메치-루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S-K-63

中部版

隣人愛의 慈父 開城의 金老翁

【開城】부내만월정(滿月町)이백십일번지 김수원(金壽元)이란 노인은 해마다 구년째이면 씨의 향리인 개풍군 서면강리 미 한해의 풍재에오기를 수십년간을 계속하야 자못 칭송이 자자하든 바 씨는 금년도 년말에 동리구빈자 삼십여명에게 일백여원어치의 백미를 분배해주워 남다른 자선자로 숭앙이 놉다한다

初等教育擴充돼도 卅三萬名겨우收容
學齡兒童의全部入學은極難
五年後의京畿道施設

소화십이년말현재 경기도내의 학령아동(學齡兒童)을 학무과조사에 의하야보면 도내거주조선인 이백이십이만오천삼백칠십구명가운대 지정된학령아동수가 삼십만사백이십□명으로 그중초등학교에입학한 어린이는 관공립보통학교에 십만륙천구백이십□명, 간이보통학교에 오천구백이십여명 사립보통학교기타에 이만이천사백오십이명 합계십사만오천일백구십구명으로 학령아동수에 대한 비률은 겨우사할오분에불과하며 서당, 강습소등에들어간 아동 이만명을가산하드라도 오할밧게안되는 상태이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오개년으로 단축되 소화십칠년에 완성되는 제이차초등교육확충 계획에 의하야서는 보통학교수용력은 취학추정(推定)학령아동의 륙할이상 삼십만명밧게 수용할수업게되나 의무교육의 전제가되는 학령아동개학제(皆學制)에의하야 지원아동의 전부수용실현도 요원한 장래라고할수밧게업다

四年制公普校의 完成昇格이緊急
二七八公普校中에四年制一五五校
京畿道의重大問題

경기도학무과조사에의하면 소화십이년말현재 도내공립보통학교수는 이백칠십팔교로 륙년제가 백이십삼교 사년제가 백오십오교로 륙년제학교는 총수에 대하야 겨우사할사분밧게안되며 이비율을 부부(府部)와 군부(郡部)로 난호아보면 경성을비롯한 세부에잇서서는 구할일분으로, 거의륙년제의학교로 경성가튼곳은 이십칠교전부가 륙년제로되여잇스나 이십개군에 잇서서는 겨우삼할일분이란는 가엽슨상태이다 자기지방에잇는 사년제의학교를마치고 타면에잇는 륙년제학교로가는데는 편입시험이라는 격렬한 경쟁시험을 거치지안호면 륙년제보통학교조차 입학할수업는 지방의 실정을 생각할때 이것은 도내초등교육계의중대문제라고 아니할수업스며 학교수를 느리는 것과아울러 학년을 연장하야완전한 보통학교를 만드는것이긴급을 요하는 일로 요망되는바이다

無師獨學으로 教員試驗에合格
開城圖書館의申君

【開城】현주를 부외청교면 덕암리(德岩里)에 두고 소화오년사월에 부내원정 공립보통학교(元町公普)를 졸업한 신백기(申百基)(二〇)군은 그해 사월 부립도서관에 급사로 다니면서 그야말로 일조의 망에를 잇겨 조곰만 틈이잇스면 공부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얏든바 그는드디어 소화십이년시월에시행한 제삼종교원시험에 합격되여가지고 지난일월이십구일 룡인군룡인(龍仁郡)(遠三公普通學校)에 교원으로 임명되여갓다는데 이가타무사독학(無師獨學)으로 성공한청년은 입지전(立志傳)에 빠질만한모범청년이라고 일반의칭송이 놉다한다

平定된北支에서 建築材料를注文
仁川各關係會社에

【仁川】생산력강화 무역진전을 부르짓는이때에 인천에는 희보(喜報)하나가 또 드러왓다 북지평정과 아울러 일반건축물(建築物)을 로진전하야 수개월전에는 북지로부터 십만매의 「베니야판」주문이 잇섯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금번은 또다시 북지로부터「다다미」(疊)십만매의 주문이 잇다는데 인천각제조소에서는 주야겸행으로 작업중이라고한다

休紙空罐收集
仁川勸業係에서

【仁川】인천부에서는 사변하의 생산보국(生産報國)에매진(邁進)하는한편 소비절약데불리용의방책을강구할 필요가잇슴으로 십일만이천여의 부민이 매일 사용하는휴지(休紙)와 양철통을 헌금으로 밧구어 부민의수입이되도록 각부소에서 방책을 연구중에잇섯는데 대체그립안이 완성되여 오는십일일부터 실시될 것이라한다

屋外勞働先烽으로 棉花栽培를勸獎
伊川郡內各婦人會에서

【伊川】강원도이천군에서는 면작장려(棉作奬勵)로 소화구년부터 구개년간계획으로 경작면적 팔백정보와 면화생산고 팔십만근목표로 지도장려에만전을 다하고잇는데 그성적은 매우양호하야 금후이천면작은 만흔기대를가지게되고잇는중 면작은 무엇보다 가정부인의작업으로 적당하니만치 작년일년간 이천군당국에서는 군내각부인회를 총동원시켜 가정에만드러잇는 가정부녀자를로하여금 옥외로동을 권장하야 그실적이만흔데 군내각부인회에서 면작의경작상황은 다음과갓다

安峽面邑內里婦人會四反步 安峽面花洞婦人會五反步 安峽面下學城里婦人會四反步 安峽面水回里婦人會五反步 安峽面楮田里婦人會二反步 安峽面下垈洞婦人會二反步 東面大秀洞婦人會三反步 東面月谷里下洞婦人會四反步 東面野旋洞婦人會二反步 西面山帖里婦人會二反步 西面文岩里婦人會一反步 朝陽面卓部里婦人會四反步 山內面長在洞婦人會二反步 山內面於也里婦人會二反步 板橋面下龍川婦人會二反步 方丈面佳蘆州婦人會二反步 方丈面佳下里婦人會二反步 方丈面□□婦人會二反步 方丈面□□婦人會二反步

開城에犯罪激增
昨年中犯罪者가千名을突破
一日平均三名을檢擧

【開城】범죄파동의 가번운회에걸려 단연히 개성서에서 작년일년간 검거사건만이 칠백오십륙건이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외에도 중한죄의범방에 걸려개성검사분국에까지 회부케된범죄의 총건수는 일천일백십이건인데 그중에는 검거된 건수가 일천팔십건 검거인원이 일천이백오십육명이라한다 그리고 그중에 형법범(刑法犯)의 범죄건수가 일천이백십이건 검거인원이 일천일백륙십삼명인데 범죄의 종별로는 횡령범 일백구십팔명이제일위를 점햇스며 주거침입범에 속하는 즉 강절도등은 그수가 일백사십이명으로 제이위에 속해잇다 그다음 특별법범(特別法犯)은 총건수로 삼십팔건─검거인원수로 구십삼건에 불과한데 그중 제일만흔 범죄자가 삼림령위반(森林令違反)으로 그수가 십삼건이라한다 그러면 전기 일천이백여명의 범죄검거인원을 일일평균으로 분배해본다면 작년일년간 하로에 범죄사실이 업서진 날이 잇서도 세명이상의 범인을 체포해다는것을 수자상으로 허하하얏는바 이것은개성서 유사이래의 최고기록을짓는범죄건수로 무론지대인 개성에도 그리면에는 아가리 놀라울 범죄사실이 숨어잇다는것을 새삼스레 놀라게하는것이이다

販賣統制를目標로 漁業組合을創設
京畿道當局에認可願을提出
開豐郡에서는最初로

【開城】개성부외남면(南面)을비롯하야 서면(西面)봉동면(鳳東面)의대주민중에는 새우잡이기라는 각종의 생선을 잡어서 생계를 도모하야 가는이가 만흔데 어민간에는 사소한 리익에만 탐욕을내서 서로매렴한 관매경쟁만 해옴으로 일치단결하야 과차의 생계를 도모할자는 집단하나 조직함이업시 지내오든중 이제야 그를 간에 깨닷는바 잇섯는지 개풍어업조합(開豐漁業組合)을 공고히 조직하고 일체의 어획물을 가공제조하야 룡제판매키로 결의하고 방금도당국에까지 인가원을 게출코 허가나오기만 고대중이라한다

南大門압네거리에 旋廻式廣場新設
朝銀압까지地下人道도築造
交通量의緩和策으로

대경성의 평차발전에따라 교통난의점점심각하여짐으로 경성부당국에서는 그완화책으로 명년도부터 보내에서도 가장교통이번잡한 남대문(南大門)네거리를「로-타리」식(旋廻式)광장을 맨들기로되엿는데 장래에는 남대문과 조선은행아페 지하인도(地下人道)를 맨들계획까지도하고잇다

前途有望한林産物 四十萬圓을突破
伊川郡昨年度의集計

【伊川】강원도이천군은 경디면적보다 림야면적이 만흔만케로 금후이천군내의 자원개발은 무엇보다도 림산물(林産物)로써주종을 삼을것이데 이제 작년일년간 이천군내에서 생산된 림산물 산액을조사한바에 의하면 작년은 풍년만케로 목탄제조가 활성감소되야 목탄기근을 연출한바 이제목재 목탄 신탄 재제하고 목탄 약초 산채 종자등의 생산액이 삼십육만이천원의 지시점도가 향상함과 동시에 금후십사만원보이상의 림야에서 생산될림산물은 자못기대되는바가 만타고한다

歲年末警戒에걸린 賭博團六名을檢擧

【伊川】강원도이천경찰서판소재소(西面駐在所)에서는 구년말을당하야 례년대로 비상경계를하야 만일의위도가업시 철야활동중 지난달삼일에 서면대포리(西面大浦里)에서 윤원천(尹千萬)외 오명의 도박단을 일망타진으로 검거하야 이천서로 송치한바 윤원만이는 도박전과 륙범으로 제버릇개주지 못하야 도다시걸린바 최고법정형신원에 즉결하엿다고한다

時局克服國策遂行
伊川臨時面長會議

【伊川】강원도이천군에서는 현하 비상시국에 즉응하야 이에 타개적수행상 금번도지사회의군수회의에서 훈시한바 전달훈칭하야 이천군민으로서 총후에서 취할바 책임과 생업보국에의의 잇는 국책수행을 하고저지난일일 애국일(愛國日)에림시면장회의를 개최하고 이천군수의 애국의에 참예하고 이어서이천군청회의실에서 개최하엿는데 군내중요단체 신문관계자를 초청하야 총독훈시지사훈시를전달하고군수훈시를 하엿다는데 당일군내면장에게 지시와주의사항은다음과갓다고한다

▲指示事項 一、春期□□□에關한件 二、雇用□皮供出의件 三、道路維持修繕의件 四、各種□木建設의件 五、十五□□에關한件 七、桑蠶五個年計畫의件 八、大麻□□□□의件 九、共同購入共同販賣의件

總督知事訓示傳達

【平康】강원도임시군수회의(江原道臨時郡守會議)에 출석중이든 평강최군수(平康崔郡守)는 지난 일월이십구일오후한시에 전군내 각관공서장지방유지(各官公署長地方有志)대회를 개최하고 남총독(南總督)훈시와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의 훈시를 전달하야 일반군민의 인식을 철저히하도록지시가잇슨후 다시 조선인지원병제도실시(朝鮮人志願兵制度實施)와 학제개혁(學制改革)에대한 추지를설명하야 만흔효과잇도록 일반에훈시가 잇섯고 장리에 오후세시폐회하엿다

新政權에參加 歸國한妻子召還
仁川在留支那商人들

【仁川】일지사변의돌발로 인천에재류하든 지나인은 전부가집귀한후 청천백일기(旗)를 태워버리고 북지신정권 오색기아래 참가한 인천화상총회에서는 사변돌발전에 사용한화공 정원재주자의처자를 다시인천에 오도록 인천화상총회주석 손경삼(孫景三)씨는 지난이십일 경성수재범총령사(總領事)와 관계당국에 재선화상도항허가를 제출하엿든데 이 허가의 랑보(朗報)가 지난이십일오전에 인천화상총회주석에게 통달되엿스므로 동회에서는 당일오후세시에 동회사무소에 상배여명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허가내용을 상세히설명하고 아프로는 선의규비령작착진행중이라한다

平康畜牛注文殺到

【平康】평강군민이 갈망하든축우이출(畜牛輸出)의 인가는 지난달에정식으로 인가(認可)되야 이출우검사소(移出牛檢查所)신설까지보게되야 군민일반은 농가갱생(農家更生)의활로를 엇게되얏다하야 그장래를크게 기대하고잇는바 검사소가설치된지 한달도못되 오날에잇서 각방면으로 축우의주문이 살도한다는데 내지이출우(內地移出牛)의중소상인(中小商業者)는 물론이며 멀리만주국각지(滿洲國各地)로부터 축우수출(畜牛輸出)의주문이 살도(殺到)하야 평강군당국은 그 지도양성(指導養成)에 대망중이라고한다

歸路에바쁜農夫(京城近郊에서)

約卅五萬圓工費로 新年度下水溝改修
今年度工事는이미大概完了
京城府에서四月부터着工

경성부의 하수구개수(下水溝改修)사업은 소화십이년도부터 국비의 제사기하수구개수(第四期下水溝改修)사업으로서 삼칠만팔천원의 예산이계상되고 부비의 일반하수개수(下水改修)사업으로 십팔만칠천원의 예산이류파되여 금년도예정으로 제사기하수개수 부분으로 련지정(蓮池町)이정목, 장사정(長沙町)명륜정이정목(明倫町二丁目)관철정(貫鐵町)천연정(天然町)장교정(長橋町)수표정(水標町)대도정 원정이정목(大島町,元町二丁目)본정삼정목(本町三丁目)대화정일정목(大和町一丁目)다옥정(茶屋町)교북정(橋北町)옥인정(玉仁町)봉래정일정목(蓬萊町一丁目)의 십사개소에연장팔천사백사십오「메돌」의 사후 개수사업이 착수되엿섯는데 그공사가 예정대로진행되여 현재에는 다만 련지정 명륜정이정목 천연정 대도정과원정이정목 욱이정의다섯곳이 완정까지에는 조금남어잇는데로 이것도 오는삼월말일까지에는 전부 끗치날것이고 그외의 안후것은벌써그공사가 완성되엿다 그러고 부비의 하수개수사업부분으로는 서사헌정(西四軒町) 본정사정목 화원정(本町四丁目花園町)왜성대 본정삼정목(倭城臺 本町三丁目)욱정일정목(旭町一丁目)계동정 가회정 재동정(桂洞町,嘉會町,齋洞町) 명치정일정목(明治町一丁目) 청엽정삼정목(靑葉町三丁目) 수송정(壽松町)적선정(積善町) 행촌정(杏村町) 교북정 화원정 죽첨정삼정목(中林町 竹添町三丁目) 봉래정사정목(蓬萊町四丁目)죽첨정 리화정(梨花町) 청화정 삼판통(三坂通) 영정(榮町) 라원정 경운정(慶雲町) 관훈정(寬勳町) 영등포정(永登浦町) 익선정(益善町) 수정(壽町) 통의정(通義町) 적선정(積善町)도화정오정목(桃花町五丁目) 아현정(阿峴町)의 이십이개소로 그연장이 구천오백구십「메돌」인데 이중에 영등포정만은 구획정리사업만케로 아직공사에 착수하지못하얏스나 신년도로 미루게되엿스나 그나머지는 행촌정교북정과 봉래정사정목 청수정이 삼월말일까지는 완정될것이고 그외 전부는 현재벌써완성되여잇다 이러케 십이년도중의 하수개수사업개소의 공사가 예정대로 갓치나는데 신년도에도 계속하야 약삼십오만원의 예산으로 하수개수를할터이라는데 신년도에 새로이착수될곳은 익선정(益善町) 견지정(堅志町) 사직정(社稷町)통의정 수정(壽町)관수정(觀水町) 평동정(平洞町)봉래정삼정목(蓬萊町三丁目) 한경 옥천정(玉川町) 서대문정일정목(西大門町一丁目) 창성정(昌成町) 원서정(苑西町) 원남정(苑南町) 황금정(黃金町)향금정이정목등 이십여개소로 될 모양이다

南部幹線道路第一期의工事는進捗 明年度로써完成
第二期計畫은約六百萬圓工費로 三越아페서龍山까지

시내 욱정(旭町)일정목으로부터 대화정(大和町)의번사령부 아프로 통하는 삼개년계획의남부간선도로(南部幹線道路)개수공사는 명년도로써 완성될 예정인데 부당국에서는 이것이 완성되면 제이기계획으로써 약륙백만원의 거액으로 삼사년이후 오개년계획으로 삼월(三越)뒤로부터 남미창정(南米倉町)신뒤 길야정(吉野町)삼판통(三坂通)을 거쳐서 룡산(龍山)으로가는 대간선도로를 신설할계획을 가지고잇다 지도양성(道路新設)에 대한 계획이라고한다

000559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畫　【41】

소굴(九)

봉산은 전에 선비가업는 시골인데 장가(張可樹)이란 화백겸비한 선비가 편지들도 처음 나서 봉산의 때를 씻섯다 그의일화를 우에서까지 알고루지(特旨)로찬봉조사를 시키엇다 나 그는원(元)黃海)에 나서지스코 일흔생 시골에 들어안저서 제자를 만이 길러 노흔까닭에이때 봉산은 황해도에서 선비만키로 평산과 가치치게되엿섯다 봉산군수 박흥천이 판가에 일업는날 장침봉 제자의 유소난 선비 사오인을 다리고 계두산(鷄頭山)경림사(境林寺)에 나와서 봉산 십이경(十二景)의 하나인 낭의봉(浪議峰)을 시제(詩題)잡아 풍월들을 짓는중에 호장(戶長) 리방(吏房)승발(承發) 삼공형이 한께 나와서급한 공사가잇다고 통인시켜 말하야 군수가 안졋든 누마루 아래로 삼공형을 불러드리엇다

『급한공사가 무엇이냐』

군수의 뭇는말을

『서울서 금부도사가 나려왓소이다』

호장이 대답하얏다

『금부도사가 나려왓서』

군수는 호장의말을 한번 뇌고나서

『무슨일루 나려왓다드냐』

하고 물엇다

『무슨일인지는 알길이업사오나 금부도사가 객사에 와안저서 안전께 전교(傳敎)밧자오려 나왓시라구 서원가리 재촉하옵되다』

『내게 전교가 나렷다 무슨일잇까』

군수는 혼자말로탈하는데 리방이선자리에서 한두거름 아프로나서서

『소인이 라줄하나를 보옵는 덧짓이 까닭을 무러보은즉 서울서 역적고변(逆賊告變)이 생겨서 여러사람이 잡혀왓는데 안전 성함(姓銜)이 한사탈조사(招辭)에낫다구하옵되다』

하고 소리를 나추어서 나직나직 말하얏다

『도사가 라줄을 며치나 데리구왓드냐』

『라줄이 둘이옵구 라셩이가하나이옵되다』

『도사가 무얼 타구왓드냐』

『여마라구 와숩되다』

『그역마가 분명히 검수역에서 오것이드냐』

리방이 대답을 못하고 호장

울려아보고 또 수많을 돌아보앗다 수많이 나서서

『망두 소인의 잘아는 말이올구 경마중구은 역졸이 소인의 잘아는 역졸이올시다』

리방대신 대답하얏다

『도사의 셩이 무어라드냐』

삼공형이 다 대답을 못하야 군수는 허불 차고

『십리바기는 쫏처나오는것들이 그만것두 알어보지안쿠 나왓단말이냐』

꾸지즌뒤 선비들을 돌아보며

『나는 곳 읍으두 들어가야겟소 아직 작별수는업스나 여러분과 다시 만나지못하구 작별이게되기가 쉽것소』

하고 말하니 선비들은

『성주(城主)의 봉형은 곳 봉산일군(一郡)의 봉형이 올시다』

『청천백일가트신 성주에 올무들이 어떤님이시지 그놈은 봉산일군 대소인민의 원수올시다』

『민들두 꼿 성수뒤에 따러들어가서 다시 보입것습니다』

『성수께서 이런소조를 당하신줄 알면 민들이 집에잇다가두 저지도지해서 들어가 뵈올터인데 한자리에 뫼시구잇다가 집으로 허러저갓수가 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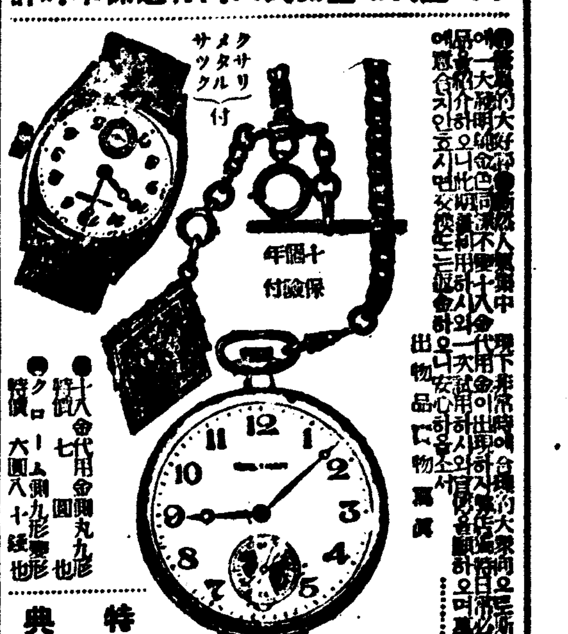
이런말을 제각기 한마듸식 짓거리엿다

박흥천이 경림사에서 읍으로 들어오는데 떠들지안코 조용히오고 객사로 가지안코 동헌으로 와다 삼공형들은 술다름으로 원님의 고로뒤를 쫏처오는중에 리방만 객사길로에서 뒤떨어젓는데 얼마동안 안지나서 리방이 동헌마당으로 드러왓다

『도사가 봉명(奉命)한 사람을 오래지체시키나구 그동안 안절므절을 못하며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러구 도사의 성씨는 서씨라구하옵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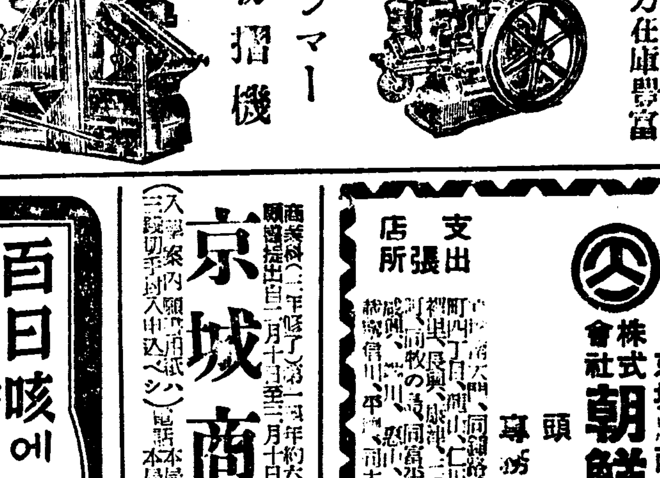
군수가 리방의 말을 듯고 꼿 여메섯든 봉인더러 뭇무백 판文의 설명을 적어꼿꼿 의금부(義禁府)판관을 차저보니 경력(經歷)다섯에 서가성이 하나는 밀접을 가저오라고하야 잇고 도사다섯은 모두 라성을 이잇다 박흥천이 의심이 엄지 안도중에 이것을보고 화실이께 령 장교들을 며느지말고 시급히 모하서 대령하라고 가단이 부하얏다

十八金代用金側萬人向特選標準時計



十個年保證付
●十八金代用金側丸九形 特價七圓也
●クローム側九形 特價六圓八十錢也
特典
十八金代用金側十大形十五石入 特價六圓五十錢
クローム側十大形十五石 特價五圓也
振替京城一〇五九九番 新義州府常盤町九 郵便局私書函第四十二號 歐米洋行時計部

時代의寵兒 世界的革命機 各馬力在庫豐富
ヤンマーディーゼルエンヂン



ヤンマー 籾摺機
釜山府大廳町一 加藤商會機械部 (型錄進呈) 特約店募集

創立 明治三十二年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京城商科學校
(入學案內願書用紙ハ三錢切手封入申込マレシ) 電話本局二六七九 京城長谷川町

百日咳에 小兒用 コデス 먹기조코 效果第一 各地藥店에잇습니다 價定 20 3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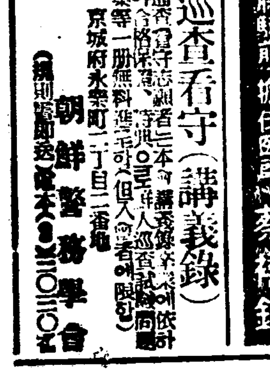
現金都賣 絹布 綿布 東順德 京城鐘路 電話光化門三六番

當選謝禮

性器強大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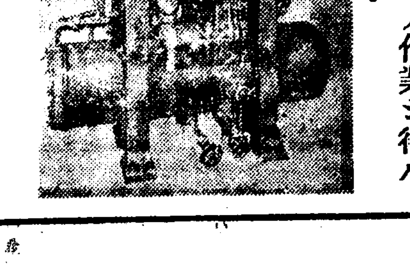
淸導補腎丸 早漏防止 太星莊藥品部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側門東園公タコバ 科齒 大京齒科醫院 京城樂園町一四六 電光③三〇〇番 院長 金喆庸 醫學博士 前世醫專齒科 技工部主任 李龍基 分院 京元線議政府驛前 擔任醫師 蔡禧銘

最優秀 中津アイスケーキ 武馬力モーター附 豫約特價提供 豫約期限二月末日限 中津冷凍機鮮滿販賣出張所



實際問題トシテ 盛夏冷却水ヲ零下三十度以下ニ保タシメ作業シ得ル機械ガ他ニアリヤ!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內臟外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八階病室完備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八〇 電話本局②一八四八番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業社

經濟解說

機械工業檢討 ①

最近軍需工業을 中軸으로하는 我產業界의 好況에伴하야 技術系界는 未曾有의 活況을 呈하야 炭鑛、金鑛、油田을 비롯하야 各鑛山이 모다 增産에 增産을 計劃하엿스므로 이에伴하는 各種設備의 改善擴充 必然的으로 採炭、採油、採鑛等의 各種鑛山機械의 需要를 喚起하야 鑛山機械製作界도 亦是 鑛業界의 活況을 反映하야 最近에업는 繁忙을 告하게에 이르럿다

×

이제 鑛山機械의 需要增大의 原因이 되어잇는 鑛業界活況의 實情에 對하야 多少 이것을 檢討하야보면 먼저 이의 中心이 되어잇는것은 炭鑛業의 殷盛일것이다 即重工業을 비롯하야 化學工業、電力業其他 各種工業에 잇어서 石炭需要量은 實로 飛躍的增加를 보혓고 各炭鑛의 飛躍的增産으로서도 오히려 需要量에 不及함으로써 따라서 新大炭田의 開發을 招來하엿스나 今後도 石炭液化等때문에 이러한 狀態는 依然繼續되던가 或은 오히려 激化될것이다。

다음에 鑛業方面을 보면 鑛業增産施策에 伴하는 政府의 獎勵와 增産計劃에 呼應하야 日鑛을 中心으로 各鑛業會社에 依하야 增産計畫이 樹立되여 鑛物資源에 移行되는 結果 鑛物石은 輸入의 增加를 보는 一方 內地及朝鮮의 各鑛山도 增產에 이르렀다。 도 金鑛方面에 잇어서도 金貨의 引上에 依하야 一層 活況을 띠어 從來 採算上으로 放棄되엿든 休鑛도 再開採掘에 着手되야 이것亦是 鑛業界繁忙의 一支柱가 되어잇다。

다시 油田方面을 보면 政府의 燃料國策實施에 伴하는 試掘探鑛과 油價의 昂騰은 益益 新油田의 開發을 招致하야 產油量은 顯著히 增加함에 이르렀다。 其外 世界的 需要增加에 依한 價의 暴騰及白金物等 鑛業物全般에 亘하는 價格引上은 鑛業界未曾有의 需要激增을 보는 一方 技術的으로도 만흔 進步를 보여 優良하고 低價인 鑛機製品이 從來의 輸入品에 代身하야 特殊物以外는 國產으로서 製作할수업는것이 업슬만큼 되엿다 其中에는 外國品을 凌駕하는 것조차 만허서 滿支方面에의 輸出도 漸次增加함을 보게되엿다。

다음에 各種鑛山機械의 主要한것만을 檢討하면 먼저 試錐機에 잇어서는 從來의 輸入品만에 依賴하엿든 狀態에서 現在에는 利根式「야마도」式等 優秀한것의 出現에 依하야 발써 輸入의 必要가 업시 거이 國產으로 代身하게 되엿다 昭和初期에는 足尾式、中山式、栗田式、山本式、金城製、日立製等의 改善進步를 보는 一方 式掘進機에 잇서서도 中山式電動鑿岩機의 完成普及을 봄에 이르렀고 輸入機는 特殊物의 一部에 使用되는것外에는 거이 國產品이 採用되게 되엿다。 도「코롯샤-」로서는 임이 日立製作所에서 完成되엿고 「골도론」도 最近 三菱工業石炭鑛業 日本車輛製造業者의 製田에 依하야 國內需要를 充足할수잇슬뿐만 아니라 滿洲等으로 부터의 注文에도 應하게되엿다。 도 抗內의 運搬設備에 잇어서도 一段進步하야 特히 鑛石及石炭運搬車의 需要는 激增하야 三菱重工業을 비롯하야 各製造業者는 모다 大量注文에 應하고잇다 選鑛及洗炭에 잇어서도 亦是各各 그目的에 應하야 一段改良이 되여 輸入品은 완全히 驅逐되고 國產品이 이에 代身하고잇스나 特히 그能力이 顯著히 優秀한點이 指摘될만하고 如何히 큰것이라도 製作이 可能하게 되엿다。 도「뽐푸」는 抗內排水用으로서 或은 油田用으로서 그需要增加가 顯著한 外에 空氣壓縮機 壓風機 照明器具等에 잇어서도 以上과 同한 비와가티 國產品의 技術的 進步의 結果로서 輸入品의 使用은 極히 一部를 除外하고는 모다 國產品으로서 充足시키고 잇는 狀態이다。

×

이가티 鑛山機械界는 需要의 激增을 보이면서도 製造業者는 決코 만히지 아니한다。 最近 需要激增에 對하야서 새로운 製造業者의 出現은 보지 못하고 從來의 製造業者가 消化되고 잇기때문에 各製造業者는 모두 多忙한 狀態이다라고 아울러서 當時의 工業界의 日本車輛、三井鑛山、住友機械、其他 各地鑛山、炭山으로부터의 各種鑛山機械에 對한 需要는 增加될것이오 따라서 製造業者도 繁忙하야 多忙을 豫想할수 잇슬것이다。(了)

日滿支를 一體로한 產業四個年計畫

日滿五個年計畫에 準據하야 重工業의 生產力擴充

日滿支의 強固한 提携를 基軸으로하야 東亞永遠의 平和를 確立코저하는 帝國不動의 國策遂行을 爲하야 政府는 國家總動員體制下에 國力增進을 圖키로되엿다 經濟部門에 잇어서는 國防經濟確立의 立場으로 國防計畫의 線에 沿하야 日滿支를 一體로한 重工業生產力擴充에 重點을 두고 實現을 期키로되고 所謂 產業四個年計畫이 樹立되엿다고 傳한다 同計畫의 內容은 公表를 不許하나 大體에잇어서 當局者가 立案된 日滿產業五個年計畫에 準據하는 것으로 보이며 今後各部門에 對하야 滿洲國에서는 昨年末 日產移駐와 積極的發展을 目標로하야 全朝鮮의 水利組合을 網羅하는 土地改良協會를 設立하려고 目下總督府農林局을 中心으로 準備中인데 右協會의 目的은 水利組合內에 耕地整理、施肥의 合理的指

具體策을 樹立한後 近衛首相의 共히 實行에 着手하얏고 今後時局推移에 依하야 多少變更이 잇드래도 그目標는 大略如左한것이라는 「不言實行」의 趣旨에 基하야 實行에 移하리라고 推測된다

日滿產業五個年計畫은 이미滿洲國에 豫想된다

品目	計畫高	其中滿洲國分
一、鐵鋼		
鋼材	一千萬噸	三百萬噸
銑鐵	一千百萬噸	四百萬噸
鐵鑛	二千三百五十萬噸	一千二百萬噸
二、液體燃料		
揮發油	三百三十萬竏	一萬竏
重油	五十萬竏	五萬竏
알콜	二十萬竏	六萬竏
벤졸	二十三萬竏	
三、석탄	一億噸	二千五百乃至三千七百萬噸
四、알미늄	十萬噸	三萬噸
五、막네슘	九千噸	三千噸
六、工作機械	五萬臺	五千臺
七、自動車及飛行機는	未定이오「펄프」에供給高 百六十五萬噸이 되게	

「펄프」는 國內에서 昭和十七年度에 自給하리라한다

不動의 國策遂行

事變下產業政策 明暗兩面露呈

輕工業漸衰·中小工業은不況 輸出貿易現狀維持難

事變下의產業政策이 國民經濟上 每日每日 明朗面과 暗黑面을 顯著히 區分하여가는것은 看過할수업는 事實이다 말하자면今番議會를通하야 至今까지 貿易統制과 吉野商相이 屢次 말하것과 가티 產業資金의擴充이나 資審의 許可가먼저 軍需品이第一이다

民間

의需要가 얼마나한 影響을밧는지 이에關해서 是非라고 한다면 이때문에 時局인 이때에는 不可避한犧牲이다 戰爭目的의遂行이라는 最高至上의命令에 擧國一致로 힘쓰지안흐면아니될때이므로 어쩔수업다하고 이러한方針이强해지면 强해질사록 重工業과化學工業等 一聯의軍需品工業만이 繁榮하게된다 輕工業은衰退

繁榮

하게된다 輕工業은衰頹그種工業의製品으로 하용어더온輸出貿易은 現狀維持도困難하게되엿다 軍需品生產力의擴充이 무엇보다도 優先으로되여가면 大資本에 有利하고 中小資本이 壓迫을밧게된다

軍需

品의生產은 大量生產을 必要로하고 必要로하고 高度의 技術을 必要로하며 境遇에 依하여서는 設備를要케되며 그러므로 軍需의注文은 大規模의 工場에 集中하야 中小工場은 不況에빠지게된다。

戰時

經濟라는 이래 我國產業全體의上에 重大한作用을 齎來한것이다 重工業과輕工業、大資本과中小資本, 이明暗의두길은 이로부터새 가漸漸 버러저가고잇다 原料를 엇을수업서 悲鳴을 올리는中小工業者, 時局때문에 거이無職된 平和產業資本 此等의소리가 前議會에서 成立된 臨時資金調整法과 輸出入品臨時措置法은 最近 數個月間에

議會

에 反映되지안흘수 업을것이다 戰時經濟政策의 根本的基調를 向하야 부르지즌것이 即 그것이다 明暗의 摩擦을 調整하라! 產業의長期抗戰에 對應함에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急務이다

軍需下請資金 三十萬圓程度?

鮮銀에서積極的

戰時體制下에 軍需工業確立을目標로하는 軍需工業下請工業의擴充強化에 對하여서는 下請組合의 結成等에 依하야 總督府는 積極的으로 助長指導케되여 着着準備를 進捗시키고잇는데 此等下請業者의 이에 要하는 施設資金은 政府의 補助에 依하는 外三十萬圓程度의 資金을 要하므로 이에 對하여서는 金融業者의 協力을 求하야 鮮銀、殖銀、東拓、三社가 大體이에 當하게된 機運이 잇어 鮮銀이 자못 積極的이므로 結局鮮銀의 融資가 大半을 占하게될模樣이오 殖銀、東拓도 從來의 中小工業金融의 關係에서 可及的이에 協力하고십다는 意向이라고한다

全水組를 網羅한 土改協會의 目的

全朝鮮水利組合의 合理的經營에依하야 畜產品의 加工調製市場에는 飼料管理의 合理化와 相互檢査를 實施하게 되엿다

畜產增殖

實情에마처

朝鮮農業部門中 가장 뒤떠러진感이 잇는것은 畜產部門이므로 總督府에서는 既報와如히 十三年度以降 積極的으로 畜產資源開發에 努力하기로 決定하엿다 牛馬의 大增產計畫을 新規事業으로하야 明年度豫算에 너흔外에 綿羊、豚、其他畜產도 奬勵하야 從前과가티 遂行하게되엿는데 그具體的方策에 對하여서는 直隸的獎勵政策을 避하고 朝鮮獨特한 立場에 立脚하야 調査研究를 遂行하게 되엿다

殖銀五百萬圓 債券을發行

四分一厘의利率로

起債市場의 오래동안의 梗塞을 打開하기爲하야 殖銀에서는 일즉부터起債計畫으로 大體諒解를 엇게되어 預金部引受로 左의 條件으로 發行하게되엿다한다

一、金額五百萬圓
二、利率年四分一厘
三、發行價格九十九圓
四、償還期限十一年

그리고 殖銀에서는 繼續하야 一千萬圓의 債券을 發行할 豫定인데 이것도不遠成立을 보게될것으로 殖銀에서는 이미今年上半期에잇어서 長期資金의 所要額을 決定하고 債券發行에依하는 資金準備를 기다리고잇을뿐이라한다

林殖銀頭取北鮮視察

林殖銀頭取는 中富審査、近藤商業金融、高松秘書三課長을 帶同하고 五日夜京城發北朝鮮에出張하야 利原鐵山 城津日本高周波工場을 視察하고 八日에歸城할豫定이라고

시하야 滿洲及北支方面의 開拓이 絶對必要하므로 總督府에서는 이方面의 研究에 注力하기로 하엿는데 그具體策에 對하여서는 內地또는 海外에 가 倣치안코 朝鮮實情에 則하야 가장 效果的方法을 採用하고 도 內地、滿洲와의 相剋摩擦을 避하기爲하야 特히 注意할 方針이라고한다

『밀』直輸出

이미一萬噸

北朝鮮으로부터의『밀』殼米直輸出은 既報한바와如히 巨船이 續續入港하는 狀態인데 本季에 北朝鮮밀出輸出은 다음과가티 一萬噸을突破하고 既決定分만으로도 一萬一千餘噸에 達하얏는데 모다 三菱取扱이다

▲獨逸向 粟田丸一千八百噸外에 아푸리카號 一千五百噸(二月三日出帆) 데루비구號 (二月十

棉花輸入을統制

三個輸入商으로만組合組織 獨占에對하야物論擡頭

北支貿易의 情勢好轉에 따라 棉花輸入은 一層그統制의必要를 늣기고 朝鮮에서도 中央의方針에따라 數個의棉花輸入商에 依하야 統制團體를 組織케될模樣으로 總督府商工課의 指導下에 三菱、三井系의 東洋棉花、仁川의『오다조구』等이 組合을 組織케될모양이다 이組合에 依하야 朝鮮에輸入될 棉花는 完全히 獨占케될모양이고 數量은 百五十斤 一俵를 約二萬俵限度로하되 大部分은 北支棉花를 輸入케될 모양이다 이棉花輸入統制에 加入한條件으로는 內地의 例를보면 從來大略十年을두고 棉花輸入商으로서 實績을가진者에 限한다는 情勢에서는 前記三者에만 限하고 그外의 棉花輸入商이나 製棉業者는 除外하려고 하는 態度가 보이고 棉花業者間에는 物論이 잇다 即朝鮮은 北支와 地理關係도 特殊하야 物貨交易도 便利한데 그가티 一部小數의 商에만限하야 輸入을許하게 하고 도從來輸入商으로 相當實績을가진者도 除外하려는 情勢에잇서 結局從來直輸入에 依하던것을 中國商에게 利潤을넘겨 주게된다는것은 不當하다는것이다 特히 平壤의朝鮮人棉花業者間에 에대하여 物論이잇서 棉業者間에 注目을끌고잇다

綿人絹交織도 移入稅를免除

移入人絹과 綿人絹交織布로染色又는漂白後販賣에適當하도록 整反(疋)키爲하야 一定한長으로 裁斷하여輸移入하는境遇에는 그裁斷을加工行程의一部라고認하고 移入稅를免除하여왓는데 今回 다시移入의綿人絹交織物에도 이特典을주어 朝鮮內加工業者의 達助長에資하기로되여 一月二日附로 稅關長에對하야 總督府에서通牒을發하엿다

朝鮮米生產費 今年도未決定?

十二年產 朝鮮米生產費는 東京에서 前後二回委員會를 開催하야 審議하엿스나 드듸여決定을보지못하고 그대로 해여지게 되엿스나 關係當局사이에서는 決定만은 보지못하엿스나 林省及總督府의 意見이 接近하여왓스므로 當分間 無理하게決定치안허도 조흘것이다 라는 意見이 잇스므로 今年 生產費決定을 보지안흐리라 고 생각한다 朝鮮米生產費는 自治管理法에依한 買上發動以外에는 거이 使用치안흐므로 同法이 發動치안흐면 正式決定을보지안는대도 別로 支障이 업을것이오 도 發動하는 境遇에는 다시 協議決定하면 조흘것이므로 委員會의 再開도 업슬것이다 그런데 十二年米의 生產費는 十一年產米의 二十二圓六十二錢에比하야 物價는 騰貴하엿스나 半面 未曾有의 大豊作이므로 石當은 多少싸게될模樣이다

『사쿠라』七千萬本 上海로보낸다

專賣局에서는 먼저『가찌도끼』『마이베니』를 北支方面에보내서 好評을博得하여 朝鮮煙草의 聲價를올렷는데 今般에다시『사쿠라』七千萬本을 上海方面으로 發送하게되엿다한다

燃料節約엔 技術向上急務

揮發油、重油의 消費節約은 朝鮮에서도 各機關을 通하야 實施하고잇는데 이와 關聯하야 鮮에서는 運轉手、機關手의 技術을 向上시키자는 論議가 提唱되어잇다 即 朝鮮은 內地와달라 交通不便의 土地이므로 形式的 一定한 量의 節約가는것은 交通政策上 決코 조흔것이아니다 그것보다도 朝鮮에 重要한것은 運轉手 機關手에 完全燃燒에 關한 敎養觀念이 缺如되여잇서 不合理한 使用을 行하고 잇는 다 이러한 技術向上의 指導를하면 充分한 揮發油重油의 節約을 實現할수잇을것이라고 본다

公益質屋

國庫補助

昭和十二年度公益質屋經常費의 借入資金利子에 對한 國庫補助는 다음과갓다

▲京城府二、七〇四圓 ▲仁川府一、二九七圓 ▲群山七六九圓 ▲木浦府九一二圓 ▲大邱府一、三二七圓 ▲釜山府二、一二七圓 ▲鎭南浦府九二圓 ▲新義州府一、〇八九圓 ▲咸興府八五七圓 ▲元山府 九八二圓 ▲興南府一、六一一圓 ▲淸津府一、一八四圓 計 一八、七一三圓

導等을 右協會에서 統制的으로 指導코자함에 잇다고하는것인데 協會維持費로서는 水利組合 蒙利地區一段步에 對하야 一錢五厘程度의 賦課金을 徵收하기로하엿다한다

一日) 松江丸一千噸 (二月十日) 르키號 一千五百噸 (三月十日) 計六千六百三十噸

▲米國向 十二月中에 二隻三千噸

株式 突込警戒 反戾

今日의市勢(三日)

前場反戾

昨後場朔落된데 이어 今前場은 突込警戒와利喰로 反戾強調이엇스니 即鐘紡은 二百八十三、四圓臺 東新은 百六十三、四圓臺 大新九十二圓臺 滿重八十七圓臺이엇다

後場採合

後場은 東新은 百六十四圓二十錢 鐘紡二百八十四圓三十錢에堅調保合裡 大引

鐘紡十二圓押

增資決定을 傳하야 暴騰된鐘紡은 去月二十七日에 東京短期二百九十四圓丁의 高價로 奔飛코

國債 押目買로 引締

〔東京電話同盟〕 當限納會로 場面閑散하엿스나 前日軟調를示한 뒤이라 再次押目買人氣로 되어 佛貨債는 十錢上伸, 米代債도 五分半四十錢高、六分半十錢高로 上伸이엇다

甲號 五分		一〇二、五〇
一回 四分		一〇二、一五
二回 四分		一〇二、一五
十九年物		九八、五五
二十三年物		九八、三〇
二十八年物		九七、〇〇
佛貨 四分		一九七、〇〇
米 五分半		三六九、五〇

東新의强弱觀

東京短期東新去月二十六日의 百六十二圓五十錢을底라하겟고 二十七日百六十八圓七十錢에 暴騰되어 氣勢가조터니 昨後場에는 百六十二圓八十錢으로 다시떠러저서 暴落低價를三十錢남기엇다 이것이二番底로된것인지 또는百六十圓割이잇슬것으로 보아야할지가問題이다 一般的인 見解로는 目前强氣로는 因難하나 東新實가 流行되는 點으로는 鐘紡寒,鐘株實, 東新買가流行되는點으로는 그러나 東新의無理低落도 斷定할수업는데이다

後場伸惱

後場은 三十一圓九十四錢이 二十一錢落으로 四錢九十錢으로 四節九十三錢이엇다

發會後强

新甫四月限은 政府米買上을完了한後 即朝鮮米買上成績不良의 行動을 一巡한後에 發會되어一時彷徨續하다가 幕후三十二圓丁까지 低價하여서의 五十丁反高를示하엿다 勿論 陰陽過年의原理에 依하야 反動高일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材料面으로는 昨今正租高에 比하야 淸算의割低가 現 材의一條가되어잇스나 今回百萬石買上에 朝鮮米買上은 二十萬石에 不過할것으로 그渦米는 結局 淸算市場의 渡米化하기가 十常八、九이다 昨今地方側이買進하는 그反面에 精米側의實繁物어 現出할것을보면 滿淸米의 遞分이 아닌가 觀測되며 또는 來月의 限月의 賣出로 實勢解除을 따라 產地의 安定가한 嫌忌도 업지아니하고 市勢의 步調로 본다 할지라도 作年九月부터 今年一月까지의 五個月續騰을 告한後인만큼 어느程度까지의 反落을 免치못할것을 足히 알수잇다 그럼으로좃 月의 强硬勢는 一時的現象이아닐가한다 果如何?

結局保合而己

昨今의米界事情을 綜合하면正米는 正租高에比하야 割低를示하고 따라서 淸算도 割低의觀을呈하여서 買叩할餘地가 업스나 그러나 그反映으로는이러할만한 强材가업음으로 買占할수도업는 現象이다 新春後의 反高는 客月末低落의反動으로 何等의强材料가 업다 안혓스니 又는 淸算의 割低를云調하는此際인만치 購入的實方針을 取하기도難하다 그러므로客月의 阪地三十五圓〇八錢과 當地三十二圓四十二錢을 春間의天井으로하고 그以下의 範圍에서 어떠한 新材料를 發見하기까지 保勢로 終始하지안흘가한다 一般米界에서는 政府의 第三次買上이 잇슬것으로 觀測하고 잇스나 米價가 此邊高價를維持하는때는 第二回買上價의 低廉으로보아서 買上을實行하지안흘것 갓고 又는低落에買上이 實施 하는때는 正米價의 飯然反高를示하고 말것임으로 結局大幅保合을 免치못할모양갓다

期米 頭重伸惱 採合

前場頭重

今朝阪地先限三十四圓四十四錢인 四丁高를 하고 當은一圓六十二錢인一丁高 中은一圓八十錢인 四丁低로 先限은 三十一圓八十八錢인 三丁高로 場을始하여 阪地四十錢을 終始함을따라 도한當地先限은 九十八錢六 本同價로 釘付이다가

市場六感

㊑……昨後場嫌氣投로 떠러지고나서 今前場은 反戾▲議會中이오 國際關係가 複雜하고 投機株抑壓時代이니 東新가튼것이 活躍키는 힘드는터이나 ▲雌伏賈東新實가 한참 되엇스니 機만잡으면 反動勝이 잇슬것은 하다만은……▲支那降伏市勢가 나오기前에 新의 大崩이 잇스리라고 弱氣는보는모양이데 지나친 鮮觀이 아닌가?

㊊……新甫四月限은 發會第二日만에 約三十丁의 反高를 示하엿다만은 이러한 弱材를 無視하지못하엿스니 輕弱한 强材料 貿易見實難할것이라고는 調키難한겻 產地의 形便으로보아서는 大農家의 持米뿐으로 其外는 少量實出하였다고하나 그러나 短期의 貯藏이 解除된는때는 一時實勢의 壓迫을 加하게될모양▲그런데 朝鮮在米에 對하야 一考를 要할것은 中農以下의 貨物이 出盡하엿다고는하나 그實物이 大部分中間商人에게 滯在하고잇는데이니 結局은 日本內地로 移出하기外에는 自由로 處分할수업는 現象이다 두고보라 (雲山)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中		
先		

大邱閑散

材料出盡하여双方의 材料가 업고 當用買가 多少散見되는 程度로 顯著한 賣買는 보히지안는다

群山上進

低價에對하여서는 保險의市勢인 關係上 產地態度 依然正租堅調와 相俟하야 地場所持側의 態度가 强硬하고 此邊價位關係로 內地도 買上米의대신 手當의 多少照電이 잇서 人氣强調로 市勢로 十錢이 上進하엿다

木浦同調

內地로부터의 買上내신米의 手當人注가 잇스나 中在米滿庫이므로 東地의 出廻도 所持側이 此邊의 强硬하야 市勢도 前價同樣으로 保合

釜山昂進

內地로부터의 買注가잇서 商談이 活氣를띄고 場面은 產地及淸算高刺戟과 相俟하야 市勢十錢이 昂進하야 强堅을 示하엿다

仁川不變

第三次買上을 目標로 依然한 正租高이고 市中人氣가 刺戟되어 强調를 일치 안치만 各地期米의 釘付狀態로 買方도 갑을 올리지안허 前日同樣으로 一般이 內地入注待의 態度이다 穀良 三等 三一、四〇

京城保合

米所의 活動開始로 原料買가 잇스나 各地期米의 態付氣迷로 市勢는 올르지못하고 前日과不變이다

正米 不變 閑散保合

株式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朝 盆 取 金盆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東 趙後鎬取引店

海外經濟 (二日)

銀行券 (二日)

金利

對外爲替

正米

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今日財界 (三日)

京城物價 (三日)

株式

期米

砂糖 生糸 人絹 棉花 綿糸